

전략연구 2017-07

#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jinyoungkim@cni.re.kr



# 연구 요약

## 제 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전 세계적으로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역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 분야를 해양환경, 수산, 해양레저·관광, 항만·어항 분야로 구분을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제동향 및 국가수준의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각 분야의 패러다임 및 이슈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초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현황 및 실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분야별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남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 2장 해양수산 분야별 동향 및 법제도 분석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 및 해양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것은 랍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협약(CBD), 나고야의정서 채택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해양이용의 패러다임이 개발을 통한 이익 보다는 보전과 복원을 통한 해양환경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환경에 대한 가치인식 증대에 따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요계획으로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갯벌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어선어업에 의한 수산물 생산량이 정체된 가운데 양식업에 의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IUU 어업행위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국가 간 지역적

협력,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수산업 문제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및 국내의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6년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은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공급, 수출, 수산산업 등 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정책의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미래 해양레저·관광의 트렌드로는 힐링·건강, 개성·감성, 환경, 글로벌화 등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헬스케어, 힐링프로그램, 해양레저선박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양관광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계획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전국 연안과 인접해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여건에 맞는 특화된 권역 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서해안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충남지역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육성을 통한 서해안 국제관광권 설정과 광역관광·문화벨트 공동 개발·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에서는 서해안 고유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전·복원하면서, 체험학습 및 생태관광자원으로의 개발·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거점으로서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국제 항만물류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독주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항만 간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내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개 항만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항만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항만과 관련된 국가계획으로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들 수 있다. 2016년에 수립된 ‘수정계획’에서는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비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총항만 물동량 17.1억톤, 항만 부가가치 40조원, 항만산업 종사자 60만명 달성을 항만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항만·물류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과 노후항만의 항만재 개발사업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제 3장 충남 해양수산의 현황

충청남도의 연안시군 인구는 충남 전체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충남 전체인구 증가율(14.2%)보다 더 높은 증가율(24.4%)을 보이고 있다. 2015년 충남의 어업 가구수는 8,162가구로서 전국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충남의 어가와 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가 및 어가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어가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2015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비중이 50.7%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의 해양수산물 관련 산업의 사업체는 2,954개로 전체 연안시도의 6.7%(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11,815명으로 전체 연안시도의 3.4%(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업체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산물 소매업(1,478개)'이 전체 사업체의 절반(50.03%)을 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의 반이 '수산물 도매업(가공식품 포함)'에 해당한다(770개 사업체, 26.1%). 그 뒤를 이어,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각각 9.5%(282개 사업체)와 4.9%(145개 사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해양수산물산업 종사자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전체 종사자의 27.1%(3,196명)가 종사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수산물 소매업'과 '수산물 도매업(가공식품 포함)'에 각각 22.7%(2,682명)와 17.2%(2,035명)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해양수산물 예산은 2014년 약 772.9억 원이었으나, 2015년 약 769.1억 원, 2016년 약 986.4억 원으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7년에는 예산이 약간 삭감되어 약 921.0억 원 수준이다. 각 년도별 각 부서의 예산 배분을 보면, 수산물과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해양정책과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충남 해양수산물 예산은 절대적인 액수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물 예산의 비율 모두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가인구 1인당 해양수산물

예산은 11개 연안시도에서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어, 어업인구(어가인구)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는 1,242km에 이르는 해안선과 넓은 갯벌(357km<sup>2</sup>, 전국의 약 14.4%), 그리고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환경 분야에서 큰 강점을 지니고 있다. 국내 어업생산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패류의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연안·도서지역에는 13개소의 지정관광지가 있으며, 해수욕장은 34개소가 지정되어 있다(2015년 기준). 2015년 전국 해수욕장 이용객의 14.6% 정도가 충남지역의 해수욕장을 방문하였다.

충청남도에는 무역항 5개소(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태안항, 보령항)와 연안항 2개소(대천항, 비인항)가 있다. 충남 항만의 장점으로서는 지리적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물류의 유입이 집중되는 수도권과의 근접성, 중국과의 최단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충남이 보유한 8개의 국가어항과 29개의 지방어항 중, 지방어항의 경우 열악한 투자여건으로 개발 완료된 어항이 16개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남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항으로는 보령 요트경기장이 있으며,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등 7개소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왜목은 거점형 마리나로 지정되었다.

#### 제 4장 충남 해양수산의 주요 쟁점 및 제안

충남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분야에서 지니고 있는 장점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여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철새 서식지 등 세계적인 연안습지 및 해양보호구역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서천갯벌에 대한 갯벌도립공원 지정을 제안한다. 갯벌도립공원의 지정을 통하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역에 대하여 도해양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는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4개소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기조에 맞추어, 근소만, 천수만, 아산만 갯벌 등 보존

가치가 높은 해역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 수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수산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국 패류생산량의 약 1/3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잘 발달된 질 좋은 갯벌에서 생산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남 수산 분야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바지락, 해삼, 김, 굴 등을 4대 전략품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품종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단지의 조성도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천해양식의 비중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문제에 관해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기술을 도입·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은 4계절 수산양식이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해양레저·관광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해양헬스케어 산업단지 또는 해양치유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양헬스케어 및 치유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태안군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협력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태안군과 보령시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해양헬스케어 및 치유관광산업을 추진할 경우, 보령 대천~원산도~태안 영목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완공되면 거대한 환황해 해양헬스케어 및 치유관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크루즈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대산항과 보령신항에 크루즈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크루즈 관광객이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배후 관광단지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보유,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과 같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항만·물류와 관련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철강, 에너지, 석유화학 등에 특화된 항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의 유치를 통한 항만과 산업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린아와 관련하여,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요트 클러스터 개발을 제안한다. 천수만 주변의 2개의 마린항만(창리, 원산도)과 1개의 어촌마린아역(남당항), 그리고 인접한 보령요트경기장에 대한 우선적인 개발을 통하여 마린아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수만 요트 클러스터의 마린아 항 개발을 준비하는 동시에 충남의 아름다운 해안선 및 도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항로의 개발도 준비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천수만 주변 또는 보령시 연안에 마리나, 해양레포츠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한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동향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경남과 비교할 경우, 절대적인 수치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분야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으로 갯벌도립공원과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해양환경 분야), 바지락, 해삼, 김, 굴 등 4대 전략품종에 대한 가공·유통 거점단지 조성, 온배수를 이용한 4계절 수산양식(수산 분야), 해양헬스케어 산업단지 또는 해양치유 관광단지의 조성(해양 레저·관광분야), 천수만 요트 클러스터 조성과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조성(항만·어항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확한 기초자료의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해양산업조사코드를 개발하여 해양산업현황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제안한다.

# 목 차

## 제1장 머리말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해양수산 분야별 동향 및 법제도 분석

- 1. 해양환경 분야 ..... 3
- 2. 수산 분야 ..... 7
- 3. 해양 레저·관광 분야 ..... 9
- 4. 항만·어항 분야 ..... 11

## 제3장 충남 해양수산의 현황

- 1. 일반 및 산업현황 ..... 13
- 2. 예산현황 ..... 25
- 3. 해양환경 분야 ..... 31
- 4. 수산 분야 ..... 36
- 5. 해양 레저·관광 분야 ..... 45
- 6. 항만·어항 분야 ..... 55

## 제4장 충남 해양수산의 주요 쟁점 및 제안

- 1. 해양환경 분야 ..... 63
- 2. 수산 분야 ..... 66
- 3. 해양 레저·관광 분야 ..... 67
- 4. 항만·어항 분야 ..... 69

## 제5장 결론 ..... 71

※ 부록 1. 전국의 습지보호지역 현황 .....	73
※ 부록 2.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74
※ 부록 3. 충청남도 지방어항 목록 .....	76
※ 부록 4. 해양산업 통계조사의 해양산업 분류체계 .....	78
※ 부록 5. 부산 해양산업 분류코드 .....	80
참고문헌 .....	85

## 표 목 차

<표 1> 제2차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2011~2020)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	4
<표 2> 충청남도 연안시군 인구 변화 .....	14
<표 3> 시도별 어업가구 수(2010년 ~ 2015년) .....	15
<표 4> 시도별 어가인구 수(2010년 ~ 2015년) .....	16
<표 5> 충청남도의 연령별 어가인구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	17
<표 6> 해양수산업의 분류 .....	19
<표 7> 전국연안시도 해양수산물관련 사업체수(2015년 기준) .....	22
<표 8> 전국연안시도 해양수산물관련 종사자수(2015년 기준) .....	24
<표 9> 충남 해양수산물국의 연도별·부서별 예산 변동 .....	25
<표 10> 충남 해양수산물관련 정책분야별·연도별 예산 변동 .....	28
<표 11> 전국연안시도 해양수산물담당부서 예산현황 .....	30
<표 12> 충남 해안선 및 도서 현황 (2015년 기준) .....	31
<표 13> 시도별 연안습지 면적 변화 .....	32
<표 14> 충청남도 시군별 갯벌 면적 .....	33
<표 15> 어업 생산량 추이 .....	37
<표 16>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 추이 .....	39
<표 17> 지역별 어업인 단체·조직 현황(2015년 기준) .....	40
<표 18> 어촌계 및 구성원 현황(2015년 기준) .....	41
<표 19> 충청남도 어촌계 현황 .....	42
<표 20> 어선 세력 추이 .....	43

<표 21> 충남 연안·도서지역의 지정관광지 현황 .....	46
<표 22> 전국 지정 해수욕장 분포 및 이용객 현황(2015년 기준) .....	47
<표 23> 충청남도 해수욕장 방문객수 현황 .....	49
<표 24> 국내 각 항만별 크루즈선 기항 실적 .....	50
<표 25>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크루즈 관광 관련 내용 .....	53
<표 26> 충청남도의 지정항만 현황 및 항만구역 .....	55
<표 27> 충청남도의 국가어항 지정 현황 .....	58
<표 28> 시도별 어항 현황 .....	59
<표 29>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투자 현황 .....	60
<표 30> 충청남도 '마리나 항만' 및 '어촌 마리나역'(驛) 현황 .....	61
<표 31> 충청남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	64
<표 32> 충청남도 수산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	66
<표 33> 충청남도 해양관광·레저·문화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	67
<표 34> 충청남도 항만·어항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	69



## 그림 목 차

<그림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체계도 .....	6
<그림 2>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도 .....	8
<그림 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구상도 .....	10
<그림 4>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	35
<그림 5> 년도별 어업생산량 추이(2010년~2015년) .....	36
<그림 6> 크루즈 선박의 국내 입항 횟수와 크루즈 관광객 수의 변화(2005년~2016년) ...	50
<그림 7> 2016년 국내 각 항만별 크루즈 관광객 수 및 입항횟수 .....	51
<그림 8> 제주특별자치도의 크루즈항만 인프라 .....	54
<그림 9> 전국 항만 위치도 .....	57
<그림 10>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및 '어촌 마리나역(驛)' 위치도 .....	62



# 제1장 머리말

##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는 2012년 12월 도청을 대전에서 홍성(내포신도시)으로 이전하면서, 서해안의 중심지로서 해양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2013년 7월에는 해양수산물국을 설치하였다. 이후 서해안비전(2013년 7월)과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2015년 10월)을 수립·발표하면서 해양수산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분야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간 동안 분야별로 투자된 예산들은 어떠한 흐름들이 있었는가? 충남 해양수산물분야의 강점 및 약점은 무엇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충남 해양수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예산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충남 해양수산물분야의 발전적 정책제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자료 구축 및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료의 산출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충청남도의 해양수산물 예산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물 예산과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범위는 충청남도 해양수산 전반을 다루었다. 먼저, 충남 해양수산의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고, 해양수산 분야를 해양환경, 수산, 해양레저·관광, 항만·어항 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각 분야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가수준의 법제도 분석, 문헌연구, 실태분석을 위한 원자료(raw-data)에 대한 분석,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첫째, 관련 분야에 대한 전세계적인 동향과 국내의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 각 분야는 전 세계적인 흐름 및 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변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 및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국제적인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서 중앙정부 및 관련부처들도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초통계자료의 원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현황 및 규모를 파악하였다.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분야의 현황을 분석·진단하고, 해당분야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해양수산 각 분야에서 전국에서 충남이 점유하는 위치를 분석하였다. 충남 해양수산의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충남 해양수산 예산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 관련 예산을 분야별로 분석하여, 관련예산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양수산 각 분야에 대한 경향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셋째, 주요 쟁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충남 해양수산 분야의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동향 및 법제도 분석, 현황 진단 및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2장 해양수산 분야별 동향 및 법제도 분석

### 1. 해양환경 분야

인구의 증가, 산업의 발전 및 교통수산의 발달로 인한 세계 교역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해양과 접하고 있는 연안지역에는 전세계 인구의 약 60%가 거주하고 있고, 천만 명 이상 대도시의 2/3 이상이 입지하고 있으며, 인구집중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다(충청남도, 2015). 이러한 해양 및 연안지역에 대한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인 어항·항만, 수산, 연안개발 부문에 그치지 않고, 해양자원개발, 해양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영역으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한정된 해양 및 연안지역의 복잡다기한 개발수요에 직면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람사르협약<sup>1)</sup>, 생물다양성협약(CBD<sup>2)</sup>), 나고야의정서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자연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충청남도, 2015). 또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해양산성화 대응, 연안침식 방지 등 해양환경 관리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이용의 패러다임이 개발을 통한 이익보다는 보전과 복원을 통한 해양환경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환경에 대한 가치인식 증대에 따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과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된 국가 주요계획으로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등을 들 수 있다.

---

1)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이지만 보통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이라고 부른다.  
2)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국가 종합계획으로,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들<sup>3)</sup>이 합동으로 수립한 계획이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2020년 해양한국의 비전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3대 기본 목표<sup>4)</sup> 중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을 설정하고 있다. 해양환경과 관련된 추진 전략 및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의 강조와 같다.

<표 1>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5대 추진전략	26개 중점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이용·관리 실현	1-1.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제 정착
	1-2.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 방안 마련
	1-3. 통합적인 연안·해양공간 관리 기반 구축
	1-4.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복구 체제 구축
	1-5.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1-6. 해상안전분야 국제화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2-1. 미래 해양자원 개발
	2-2.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2-3.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탐사 핵심기술 개발
	2-4.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3.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3-1.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3-2.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3-3.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 및 정비
	3-4.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3)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2010년에 수립이 되었으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였다(주의 : 2010년 당시 정부조직명임).

4)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3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관리 및 보전’,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이다.

	3-5.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4-1.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4-2. 경쟁력 있는 해운·항만 물류기업 육성
	4-3. 녹색 해운·항만의 실현
	4-4.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4-5.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4-6. 항만의 지방이관에 따른 항만개발관리 시스템 구축
	4-7. 항만운영의 효율화
	4-8. 해사인력 양성
5.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5-1.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5-2.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5-3.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자료 :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11~2020)(관계부처 합동, 2010)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분야와 관련된 핵심계획으로서, 해양환경·안전, 해양과학기술, 해양문화관광, 해운·항만, 해양영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관리 실현’ 분야에 관한 계획으로서, 해양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은 ‘건강하고 생산적인 바다’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상기인 오염원 국가관리체계 확립’, ‘해양기인오염 대응 능력 확충’,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보전’, ‘기후친화적 해양환경 관리 강화’, ‘해양환경정책 인프라 강화’를 5대 실천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체계도



\* 자료 :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경찰청, 2011)

2017년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갯벌생태계 복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sup>5)</sup>.

5) 동 계획에 의하면,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4개소 지정하고, 20개소의 갯벌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수산 분야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생산은 어선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정체된 반면 양식업에 의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선어업의 성장은 2000년 이후 제자리를 걷고 있지만, 양식업은 2000년 대비 2.4배가 증가하여, 어선어업에서 양식업으로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17).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국내 어업생산량은 약 276만톤으로 전년대비 약 4.7%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천해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로서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어선어업에 의한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분야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다양한 국제기구들은 수산자원의 남획과 고갈, 기후변화 및 수온상승, 불법조업 등의 문제해결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IUU 어업행위 근절<sup>7)</sup>, 지속가능한 수산업, 국가 간 지역적 협력,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수산업 문제가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한덕훈, 2015).

우리나라 역시 어린 물고기의 남획, 과도한 어획, 불법 조업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과 어장의 황폐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폐어구, 매립·모래 채취 등으로 인하여 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및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갯녹음현상과 이상해황(고수온, 저수온, 저염수 등)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및 국내의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6년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동 기본계획은 기존의 수산진흥종합대책(수산업법)과 어업·어촌발전계획(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수산업과 어촌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기본계획은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을 비전으로 하여, 이의 실현을 위하여 5대 정책목표와 20대 주요 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5대 목표와 20대 전략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공급, 수출, 수산산업 등 수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6) 주 :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업, 내수면어업이 합으로서, 원양어업을 제외한 수치임(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7) IUU 어업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그림 2>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도



\* 자료 :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16a)

한편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정책의 실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휴어제 실시, 어구관리법의 제정,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하여 바다를 되살려 2022년에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110만 톤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이력추적관리제, 양식장 HACCP 등록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ICT를 활용한 첨단양식기술 개발과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 해양레저·관광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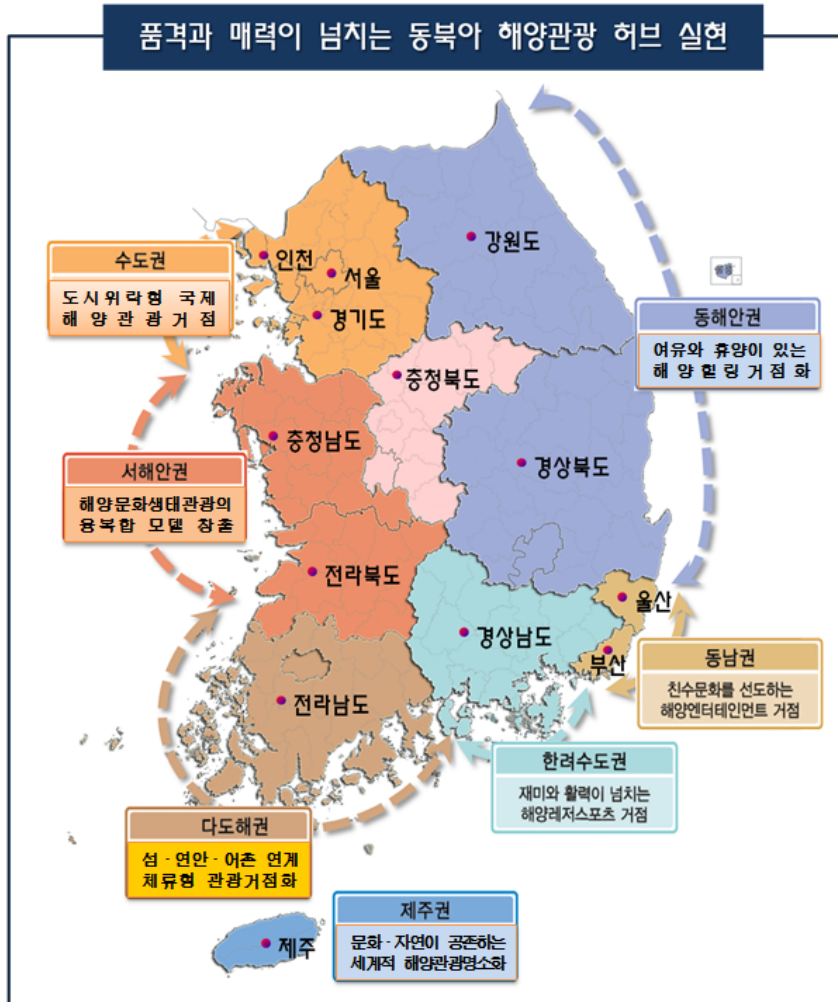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안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안을 매개로 형성된 연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관련한 영리활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해양레저·관광산업에는 해양레저·스포츠(마리나 포함),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해수욕, 어촌·도서 관광 등),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을 포함할 수 있다(박세현 외, 2013).

전세계적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2015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관광객 숫자는 2009년 이후 6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4.4%증가한 연 1,184백만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인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해양레저·관광의 트렌드로 힐링·건강, 개성·감성, 환경, 글로벌화 등이 부각되고 있다. 즉, 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휴식과 힐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해양헬스케어 및 힐링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충청남도, 2015). 또한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요트, 보트건조, 크루즈 등 해양레저선박산업이 대규모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박세현 외, 2013; 충청남도 2015).

해양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국가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양관광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계획은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며,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양관광 진흥시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2014년~2023년 10개년 기간에 대한 계획이다. 동 계획은 ‘품격과 매력이 넘치는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과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발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해양여행이동 총량 5억일 달성과 해양관광분야 신규일자리 3만5천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 연안과 인접해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여건에 맞는 특화된 권역 개발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전라북도와 함께 ‘서해안권’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림 3>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따른권역별 구상도



\* 자료 :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14)

동 계획에 의하면, 서해안권의 권역별 발전방향은 ‘해양문화·생태관광의 융·복합 모델 창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1) 보전과 체험이 조화로운 해양생태관광벨트 조성, 2) 해양경관 콘텐츠와 해양생물자원관의 연계 발전, 3) 해양테마마을, 연안축제 등 지역특화형 관광 개발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도 충남지역의 해양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정계획에 의하면 충남지역은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의 육성을 통한 서해안 국제관광권 설정과 광역관광·문화벨트 공동 개발·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에서는 서해안 고유의 우수한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을 보전·복원하면서, 체험학습 및 생태관광자원으로의 개발·활용을 통한 생태관광 거점으로서의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 4. 항만·어항 분야

해운항만 컨설팅 그룹인 Drewry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2015년~2020년 기간) 약 2.7%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783백만 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항만물류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독주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세계 항만 물동량의 약 66%가 10대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에 의하여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근섭, 2017). 전세계 항만물류산업의 동향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전 세계 주요 물류거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제 허브항만을 목표로 중심항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동북아 항만 간에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충청남도, 2015).

국내의 경우, 국내 항만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약 3.1%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3개항만이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94%를 차지하는 등 항만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해양수산부, 2016b). 또한,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한 기업의 입주가 저조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이 미약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유무역지역 등 특구의 역할이 한계적이고, 경제자유구역 등과 분리가 되어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제한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약화가 되고 있다. 이는 항만과 도심 경계의 분리, 항만과 도시 정책의 연계부족, 항만에 대한 환경관리 미흡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근섭, 2017).

항만과 관련된 국가계획으로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을 들 수 있다. 항만 기본계획은 항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계획의 위상을 갖는다. 2016년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5년이 지난 경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수정계획’이 발표되었다.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sup>8)</sup>은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비전으로 하여, 2020년까지 총항만 물동량 17.1억톤, 항만 부가가치 40조원, 항만산업 종사자 60만명 달성을 항만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에 항만 및 물류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과제에서는 항만·물류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구축과 노후항만의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8) 수정계획의 대상항만은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으로서 총 59개의 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충남의 항만은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이상 무역항)과 대천항, 비인항(이상 연안항)으로 총 7개 항만이다.

## 제3장 충남 해양수산의 현황

### 1. 일반 및 산업현황

#### 1) 연안인구

2015년 12월 기준,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2,107,802명이다. 이 중 바다를 접하고 있는 7개 연안시군<sup>9)</sup>에는 전체인구의 45.7%인 963,36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2010년 860,908명에 비해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2000년 이후 충청남도 전체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연안시군의 인구는 2005년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전체 인구에서 연안시군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4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 연안시군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다소 다른 변화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2000년도와 2015년도의 인구를 비교하였을 때, 인구가 증가한 연안시군은 아산시를 비롯하여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이다. 반면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은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0)</sup>.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산시는 2000년도 이후 인구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진시는 2005년도에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산시는 2005년도에 인구가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2005년도에 인구가 감소하여 2010년도에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5년에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청의 이전과 이에 수반하는 유관기관 의 이전으로 인한 효과로 판단된다.

9)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을 말한다.

10) 전체적으로 “시”지역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군”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은 2000년도와 비교하여 2015년도의 인구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천군과 태안군의 인구는 200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여, 2015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령시는 “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충청남도 연안시군 인구 변화

	2000	2005	2010	2015
충청남도	1,845,321	1,889,495	2,028,002	2,107,802
보령시	109,535	97,176	97,770	101,852
아산시	180,763	208,415	278,676	319,929
서산시	143,154	144,091	156,843	169,221
당진시	117,652	113,267	137,006	163,762
서천군	66,929	57,875	53,914	54,768
홍성군	90,658	82,793	82,811	94,114
태안군	65,928	58,739	53,888	59,723
연안시군 계	774,619	762,356	860,908	963,369
연안시군 비율	42.0%	40.3%	42.5%	45.7%

\* 자료: 인구총조사(통계청)

\* 참고 : 당진시는 2012년 1월부터 당진군에서 시로 승격



## 2)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해양수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어업가구(이하 어가)는 약 54,800 가구이며, 어가인구는 약 128,00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8%와 9.2%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충남의 어가수는 8,162가구로서 전국의 1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남도(34.3%)와 경상남도(17.2%)의 뒤를 이어 전국 3위의 규모이다. 어가인구 수는 18,076명(전국의 14.1%)으로서, 역시 전라남도(34.1%)와 경상남도(17.6%)의 뒤를 이어 전국 3위의 규모이다.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충남의 어가는 연평균 약 4.3%씩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는 연평균 약 5.6%씩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 평균(어가는 약 2.8%감소, 어가인구는 약 4.2%감소)과 비교하여 감소의 폭이 각각 1.5%p, 1.4%p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시도별 어업가구 수(2010년 ~ 2015년)

시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65,775	63,251	61,493	60,325	58,791	54,793 (-6.8)
부산광역시	2,469	2,393	2,197	2,061	1,972	2,203 (11.7)
인천광역시	2,678	2,663	2,575	2,423	2,410	2,172 (-9.9)
울산광역시	1,021	966	922	947	940	905 (-3.7)
경기도	844	862	861	853	850	762 (-10.4)
강원도	3,039	2,757	2,731	2,666	2,562	2,292 (-10.5)
충청남도	11,021	10,169	9,538	9,385	9,229	8,162 (-11.6)
전라북도	2,633	2,354	2,406	2,386	2,308	2,908 (26.0)
전라남도	21,809	21,804	21,578	21,747	21,246	18,819 (-11.4)

경상북도	4,069	4,113	3,887	3,760	3,636	3,017 (-17.0)
경상남도	10,768	10,055	9,753	9,346	9,050	9,417 (4.1)
제주특별자치도	5,393	5,116	5,046	4,752	4,589	4,116 (-10.3)

\* 주 : ( )안의 숫자는 2014년 대비 변화율(%)

\*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표 4> 시도별 어가인구 수(2010년 ~ 2015년)

시도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171,191	159,299	153,106	147,330	141,344	128,352 (-9.2)
부산광역시	7,408	6,862	6,262	5,751	5,324	5,733 (7.7)
인천광역시	6,983	7,052	6,694	6,196	6,138	5,069 (-17.4)
울산광역시	2,932	2,780	2,614	2,592	2,565	2,292 (-10.6)
경기도	2,475	2,514	2,447	2,433	2,295	1,843 (-19.7)
강원도	8,320	7,601	7,185	6,778	6,487	5,669 (-12.6)
충청남도	27,302	24,150	22,270	21,375	21,059	18,076 (-14.2)
전라북도	6,771	5,853	5,882	5,673	5,477	6,434 (17.5)
전라남도	54,981	52,969	52,924	52,933	51,081	43,818 (-14.2)
경상북도	10,422	9,637	8,979	8,534	8,058	6,865 (-14.8)
경상남도	28,916	26,467	25,128	23,568	21,789	22,609 (3.8)
제주특별자치도	14,573	13,414	12,721	11,497	11,071	9,884 (-10.7)

\* 주 : ( )안의 숫자는 2014년 대비 변화율(%)

\*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어가 및 어가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어가인구의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다. 아래의 표는 5년 단위로 변화하는 충청남도의 연령별 어가인구를 정리한 것이다. 2005년에 전체 어가인구의 33.5%였던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5년에는 50.7%로 절반이 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표 5> 충청남도의 연령별 어가인구 변화(2005년, 2010년, 2015년)

구분	2005			2010			2015		
	어가인구	남	녀	어가인구	남	녀	어가인구	남	녀
계	27,309	13,318	13,991	27,302	13,238	14,064	18,076	8,641	9,435
20세미만	3,937 (14.4)	2,098	1,839	3,306 (12.1)	1,711	1,595	1,459 (8.1)	708	751
20-29세	1,941 (7.1)	1,166	775	1,641 (6.0)	986	655	701 (3.9)	384	317
30-39세	2,105 (7.7)	1,147	958	1,927 (7.1)	1,099	828	882 (4.9)	529	353
40-49세	4,667 (17.1)	2,172	2,495	3,647 (13.4)	1,780	1,867	1,685 (9.3)	861	824
50-59세	5,500 (20.1)	2,688	2,812	5,882 (21.5)	2,768	3,114	4,185 (23.2)	1,930	2,255
60-69세	5,445 (19.9)	2,541	2,904	5,732 (21.0)	2,765	2,967	4,633 (25.6)	2,259	2,374
70세이상	3,714 (13.6)	1,506	2,208	5,167 (18.9)	2,129	3,038	4,531 (25.1)	1,970	2,561

\* 주 : ( )안의 숫자는 %

\*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 3) 해양수산 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의 국가산업표준분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산업의 특징에 맞게 재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사업체조사에 해양수산산업이라는 분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산업에 해당하는 세세분류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론,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양수산산업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33303)의 경우 낚시 및 수렵용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여, 이 항목에는 낚시 장비 제조, 인조 미끼 제조, 낚시용 망 제조뿐만 아니라, 조류 유인용구 제조, 수렵용구 제조, 포충망 제조 등도 포함이 되어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세세분류에도 포함이 안 되는 해양수산 연관 산업도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협과 같이 해양수산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산업의 경우, 국내은행(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64121), 신용조합(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64131)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sup>11)</sup>. 이와 같은 경우, 해양수산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분리하여 분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가 되어 과소 추정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sup>12)</sup>.

이러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이 가능한 전국적인 통일된 자료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가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해양수산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충청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된 해양수산산업의 분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수협중앙회는 “국내은행”에 해당하고, 수협의 단위조합들은 “신용조합”에 해당한다.

12) 과소 추정의 또 다른 예로는 기타 발전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35119)을 들 수 있다. 기타 발전업은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데, 해양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은 해상풍력이 이 분류코드에 해당될 수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양수산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산업에 관한 정확하고 세분화된 산업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 해양수산산업의 분류

구분	전국사업체조사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해수면어업	원양 어업	03111
	연근해 어업	03112
	내수면 어업	03120
양식어업	해면 양식 어업	03211
	내수면 양식 어업	03212
	수산물 부화 및 종묘 생산업	03213
	어업 관련 서비스업	03220
소금채취업	소금 채취업	07220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211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기타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3922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1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27219
선박 및 보트 제조업	강선 건조업	31111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2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31113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1114
	기타 선박 건조업	31119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120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수중 공사업	수중 공사업	42136
수산식품 도매업(가공식품 포함)	수산물 도매업	46313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6322
수산물 소매업	수산물 소매업	47213
해상운송업	외항 여객 운송업	50111
	외항 화물 운송업	50112
	내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화물 운송업	50122
	기타 해상 운송업	5013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내 운송업	50203
	기타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50209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52921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52929
화물 취급업	화물 취급업	52942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69190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69210
산업진흥 행정	농림수산 행정	8422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수영장 운영업	91133
	낚시장 운영업	91231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9

### (1) 해양수산 관련 산업 사업체 수

2015년 기준 전국연안시도<sup>13)</sup>의 해양수산관련 산업의 사업체 수는 총 43,791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 7,891개(17.3%), 부산광역시에 7,118개(16.3%), 경상남도에 5,788개(12.5%), 경기도에 5,465개(12.5%)의 산업체가 조사되었다.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관련 산업의 사업체수는 2,954개로서 전체 연안시도의 6.7%(7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업체의 비중을 살펴보면, 수산물 도·소매업이 전체의 6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수산물 소매업'이 17,535개(4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수산식품 도매업(가공식품 포함)'이 11,603개(26.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외의 산업에서는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이 3,453개(7.9%),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3,040개(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산업들의 경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해양수산관련 사업체 수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물 소매업(1,478개)'이 전체 사업체의 절반(50.03%)을 넘는다. 그리고 나머지의 반이 '수산식품 도매업(가공식품을 포함)'이다(770개 사업체 수, 26.1%). 그 뒤를 이어,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각각 9.5%(282개 사업체)와 4.9%(145개 사업체)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산업분야들은 각각 그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13) 연안에 접한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함.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분석에서 제외된다.

<표 7> 전국연안시도 해양수산관련 사업체 수(2015년 기준)

산 업 별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계(산업별)	7118	2745	1517	5465	3110	2954	2413	7591	3857	5488	1533	43791
해수면어업	56	1	0	2	1	0	1	4	1	1	15	82
양식어업	5	3	2	7	12	8	19	81	7	16	141	301
소금채취업	0	8	0	16	1	24	27	982	0	0	0	1058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75	68	28	276	373	282	119	1179	323	369	61	3453
기타 제조업	126	16	1	79	9	17	8	56	71	56	6	445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41	27	1	209	8	8	6	4	25	22	0	35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419	24	508	42	8	24	75	535	182	1218	5	3040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100	57	0	60	9	1	3	3	7	34	7	281
수중 공사업	60	17	9	8	17	14	10	41	28	32	15	251
수산식품 도매업(가공식품 포함)	2634	817	268	2071	524	770	548	1553	886	1197	335	11603
수산물 소매업	2459	1344	551	1703	1375	1478	1272	2658	1877	2063	755	17535
해상운송업	338	109	48	25	10	18	20	135	35	62	28	828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35	44	9	14	12	31	3	34	0	91	11	284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197	26	15	9	12	9	9	40	15	27	7	366
화물 취급업	70	28	27	14	8	18	9	37	16	32	7	266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104	16	11	85	15	8	10	20	20	21	32	342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58	42	26	326	376	48	103	37	103	100	59	1278
산업진흥 행정	17	15	3	101	49	51	124	138	162	52	15	727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4	83	10	418	291	145	47	54	99	95	34	1300



## (2) 해양수산 관련 산업 종사자 수

사업체수의 뒤를 이어, 2015년도 기준 전국연안시도의 해양수산 산업 종사자수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전국연안시도의 해양수산관련 산업에 종사는 인원은 총 346,29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94,244명(27.2%), 울산광역시 53,718명(15.5%)<sup>14)</sup>, 전라남도 50,808명(14.7%), 부산광역시 50,103명(14.5%) 순이었다. 충청남도의 해양수산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11,815명으로 전체 연안시도의 3.4%(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종사자수의 비중을 살펴보면, '선박 및 보트 제조업'이 전체의 44.7%(154,861명)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38,788명, 11.2%)이 뒤를 잇고 있다. 산업체 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수산물 도·소매업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산식품 도매업(가공식품 포함)'과 '수산물 소매업'은 각각 10.4%(36,119명)와 8.3%(28,890)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해양수산산업 종사자 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전체 종사자의 27.1%(3,196명)가 종사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수산물 소매업'과 '수산식품 도매업(가공식품 포함)'에 각각 22.7%(2,682명)와 17.2%(2,035명)가 종사하고 있다.

---

14) 울산광역시의 경우, 사업체 수는 1,517개(6.3%)로 11개 연안시도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으나, 종사자의 수에서는 전국연안시도 종사자의 15.5%로 두 번째로 많은 종사자수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울산의 경우, 조선업과 관련된 산업에서 많은 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된다. 이는 '선박 및 보트 제조업'에서 49,001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통계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표 8> 전국연안시도 해양수산관련 종사자 수(2015년 기준)

산업별(종사자수)	부 산	인 천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계(지역별)	50103	11939	53718	25475	12979	11815	10659	5088	18515	9424	6037	346292
해수면어업	3032	8	0	7	13	0	28	198	1	42	23	3412
양식어업	61	40	3	42	82	52	98	1036	43	92	728	2277
소금채취업	0	51	0	45	2	78	98	2381	0	0	0	2655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6070	653	78	4114	4548	3196	1217	8361	3059	7026	466	38788
기타 제조업	975	59	8	508	29	72	46	424	428	366	28	2943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819	298	1	2678	25	253	56	8	2021	122	0	6281
선박 및 보트 제조업	5982	163	4001	191	49	191	2299	2148	2143	7392	22	154861
낙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659	506	0	616	37	2	5	27	44	341	20	2257
수중 공사업	897	112	87	62	139	121	49	232	111	207	107	2124
수산식품 도매업 (가공식품 포함)	7146	2609	602	8080	1630	2035	1436	4417	2729	4226	1209	36119
수산물 소매업	3655	2267	853	3231	2225	2682	2103	4409	2978	3115	1372	28890
해상운송업	7404	1243	822	238	134	305	127	1918	779	618	617	14205
내륙 수상 및 항만에 운송업	479	212	339	220	55	101	21	644	0	288	219	2578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6769	1151	132	299	58	112	135	1152	258	256	24	10346
화물 취급업	4308	1627	1531	348	112	535	151	1549	368	890	223	11642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258	33	39	178	20	15	14	54	44	52	75	782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196	109	70	841	914	75	271	69	183	260	133	3121
산업진흥 행정	1192	486	121	2031	1815	1598	2338	2294	2984	2527	594	1798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41	312	31	1746	1092	392	167	207	342	424	177	5031

## 2. 예산현황

### 1) 충청남도 해양수산 예산의 경향 분석

충남의 해양수산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충남의 해양수산 예산은 2014년 약 772.9억 원이었으나, 2015년 약 769.1억 원, 2016년 약 986.4억 원으로 조금씩 상승하다가, 2017년에는 예산이 약간 삭감되어 약 921.0억 원 수준이다.

<표 9> 충남 해양수산국의 연도별·부서별 예산 변동

(단위: 천원)

부서	2017	2016	2015	2014
해양정책과	9,263,207 (10.1%)	6,105,858 (6.0%)	3,985,681 (5.2%)	3,504,800 (4.5%)
해운항만과	13,873,312 (15.1%)	11,332,609 (11.5%)	10,649,480 (13.8%)	10,020,507 (13.0%)
수산과 <sup>15)</sup>	58,800,378 (63.8%)	76,011,515 (77.2%)	61,678,266 (80.2%)	63,482,909 (82.1%)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496,707 (1.6%)	5,186,825 (5.3%)	598,094 (0.8%)	280,464 (0.4%)
수산자원연구소	8,669,224 (9.4%)			
계 : 해양수산국	92,102,828	98,636,807	76,911,521	77,288,680

\* 출처 : 각 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각 년도별 각 부서의 예산 배분을 보면, 수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의 경우, 전체 해양수산국 예산의 80%이상이 수산과에 배분이 되었다. 2017년의 경우 수산과와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3.3%로 그 비중이 이전 년도들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남의 해양수산분야가 전통적인 수산업(어촌, 어항개발 포함)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15) 2017년에 수산과는 수산자원과와 수산산업과로 분리되었으나, 본 분석에서는 수산과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해운항만과 예산의 경우는 11%~15%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만의 경우, 인프라의 성격을 띠므로 늘 일정수준의 투입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해양정책과 예산의 경우, 초기 4.5%에서 2017년 10.1%로 그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절대 액수에 있어서도 2014년에 비하여 약 2.6배가 증가한 예산이 배분되었다(2017년 기준). 이는 충남 해양수산정책의 초점이 기존의 전통적 수산업에서 해양(신)산업, 해양레저·관광, 해양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분야별 예산 분석

본 분석에서는 충남 해양수산국의 예산을 부서별이 아닌,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부서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와 같은 ‘행정운영경비’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비성 예산을 제외하고 정책 및 사업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는 2007년 12월 태안군 앞 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대형사고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분야별 예산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편성목의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분야는 해양산업분야, 해양레저·관광분야, 해양환경·연안정비분야, 수산업분야, 어촌·어항·도서개발분야, 항만분야로 구분을 하여 분석을 하였다.

정책분야별로 예산을 재구성하여 살펴본 결과, 충남 해양수산분야 관련 전체 예산은 2015년 약 757.7억 원에서 2016년 약 927.3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전년대비 22.4% 증가), 2017년에는 약 814.2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12.21% 감소). 정책분야별로 살펴본 예산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년도에서 수산업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수산업관련 예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57.4%, 65.3%, 5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산업의 뒤를 이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어촌·어항·도서개발 분야이다. 어촌·어항·도서개발 분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36.0%, 26.6%, 31.3%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 기간 동안, 해양레저·관광분야와 해양환경·연안정비분야의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분야의 예산이 전체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 3.5%, 7.3%이며, 같은 기간 동안 해양환경·연안정비분야의 경우에는 3.2%, 3.5%, 8.1%이다. 예산의 액수에 있어서도, 해양레저·관광분야는 2015년 약 19.4억 원에서 2017년 약 3배가 증가한 59.4억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으며, 해양환경·연안정비분야는 2015년 약 24.2억 원에서 2017년 약 2.7배가 증가한 65.7억 원의 예산이 배분되었다. 두 분야(해양레저·관광분야와 해양환경·연안정비분야)의 지속적인 예산배분의 증가는 해당분야에 대한 충남도차원의 정책적 관심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양산업분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도 예산의 0.3%와 0.5%만이 배분되고 있었다. 충청남도는 서해안비전에서 ‘해양건도 충남’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신)산업에

대한 강조를 해오고 있으며, 해양수산 발전계획의 6대 추진전략 중의 하나로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신산업 창출'을 설정하였다. 또한 해양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해양신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차원에서도 해양헬스케어 산업과 해양바이오 산업 등을 핵심적인 해양신산업 영역으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신)산업의 경우, 2015년~2016년 동안 천일염 육성 사업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등에 예산이 배분되었고, 2016년에는 추가로 해양헬스케어산업, 해양바이오 산업에 예산이 배분되었을 뿐이다. 이는 해양헬스케어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충남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해양신산업으로 강조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의 입장<sup>16)</sup>을 고려할 때, 많이 미흡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0> 충남 해양수산관련 정책분야별·연도별 예산 변동

(단위: 천원)

분야	2017	2016	2015
해양산업	0 (0%)	424,651 (0.5%)	234,901 (0.3%)
해양레저·관광	5,943,500 (7.3%)	3,209,000 (3.5%)	1,944,000 (2.6%)
해양환경·연안정비	6,566,500 (8.1%)	3,224,000 (3.5%)	2,415,000 (3.2%)
수산업	43,076,890 (52.9%)	60,516,281 (65.3%)	43,487,298 (57.4%)
어촌·어항·도서개발	25,290,436 (31.1%)	24,662,484 (26.6%)	27,265,248 (36.0%)
항만	539,000 (0.7%)	698,500 (0.8%)	420,000 (0.6%)
계	81,416,326	92,734,916	75,766,447

\* 출처 : 각 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 2017년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발표자료집

### 3)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 비교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의 예산은 2016년 약 986.4억원 규모로서, 분석대상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5위 규모이며, 총예산 대비 해양예산의 비중은 1.75%로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청남도보다 해양수산담당부서의 예산 비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도와 전라남도이다.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경우 총예산 대비 해양수산담당부서의 예산 비율이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전라북도, 부산광역시<sup>17)</sup>, 울산광역시 등은 총예산 대비 해양수산담당부서의 예산 비율이 1%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은 해양수산담당부서에 총예산의 1%정도를 배분하고 있다.

해양수산담당부서의 예산을 타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충남은 예산의 절대적인 액수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해양수산담당부서 예산의 비율 모두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청남도가 해양수산관련분야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예산이 충남의 해양수산을 발전시키는데 충분한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해양수산 예산을 어가인구로 나눈 어가인구 1인당 해양수산 예산을 계산해 보면, 충청남도의 어업인구 1인당 해양수산예산은 약 545만원으로서, 11개 연안 시도에서 여덟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충남의 경우, 어업인구(어가인구)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 부산광역시의 경우, 전년대비 약 163.1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비율로는 16.66%가 줄어든 수치이다.

18) 참고로 2015년의 예산으로 같은 분석을 실시하면, 충청남도 해양수산담당부서의 예산은 비교대상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곱 번째였고, 총예산대비 비율은 1.67%로서 다섯 번째였다.

1년 사이에 예산의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전국연안시도 해양수산담당부서 예산현황

(단위: 억원, %, 명)

시/도	총예산 <sup>1)</sup> (억원)	해양수산예산 (억원)	총예산대비 비율(%)	어가인구 <sup>2)</sup> (명)	어가인구 1인당 해양수산 예산(천원)
경기도	167,320	515.7 (9)	0.31% (10)	1,843	27,981 (1)
인천광역시	81,903	895.6 (6)	1.09% (7)	5,069	17,668 (3)
충청남도	56,280	986.4 (5)	1.75% (3)	18,076	5,456 (8)
전라북도	49,470	296.8 (10)	0.60% (9)	6,434	4,612 (10)
전라남도	55,556	2839.7 (1)	5.11% (2)	43,818	6,480 (7)
경상남도	72,963	1114.5 (3)	1.53% (4)	22,609	4,929 (9)
부산광역시	93,563	815.7 (7)	0.87% (8)	5,733	14,228 (5)
울산광역시	32,344	101.6 (11)	0.31% (10)	2,292	4,432 (11)
경상북도	68,338	1027.4 (4)	1.50% (5)	6,865	14,965 (4)
강원도	50,011	617.7 (8)	1.24% (6)	5,669	10,896 (6)
제주특별자치도	41,028	2130.8 (2)	5.19% (1)	9,884	21,558 (2)

1) 2016년 본예산 기준

2) 어가인구는 2015년 기준 자료를 사용함

\* ( )안의 숫자는 순위를 의미함

\*\* 자료 : 각 시도 2016년도 조직별 세출총괄표



### 3. 해양환경 분야

#### 1) 해안선 및 도서

충남의 해안선은 2015년 기준 총 1,242km이며, 해안선의 출입이 매우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연안지형은 높은 조수간만의 차이와 상호작용을 일으켜, 복잡한 연안류(沿岸流)를 발생시키고 갯벌과 같은 퇴적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해안에는 268개의 도서들이 분포(유인도 33개, 무인도 235개)하고 있다. 태안군이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인도는 보령시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다.

<표 12> 충남 해안선 및 도서 현황 (2015년 기준)

구분	해안선(km)	도서(개소)		
		합계	유인도	무인도
합계	1,242.03	268	33	235
보령시	272.99	91	16	75
아산시	7.71	-	-	-
서산시	148.99	27	4	23
당진시	115.09	9	3	6
서천군	111.48	12	1	11
홍성군	26.43	11	1	10
태안군	559.34	118	8	110

\* 자료 : 제56회 충남 통계연보(충청남도, 2017)

## 2) 연안습지

충청남도는 넓은 갯벌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 전국의 갯벌면적은 2,487.2km<sup>2</sup>이다. 이 중 충남의 갯벌 면적은 357km<sup>2</sup>로서 전국의 약 14.4%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갯벌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약 1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갯벌 면적은 약 2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3> 시도별 연안습지 면적 변화

(단위: km<sup>2</sup>)

구분	연도별			
	1998	2003	2008	2013
인천	685.0	737.1	703.4	709.6(28.5%)
경기	153.5	177.8	168.8	165.9(6.7%)
충남	304.2	367.3	358.8	357.0(14.4%)
전북	113.6	132.0	117.7	118.2(4.8%)
전남	1,054.1	1,017.4	1,036.9	1,044.4(42.0%)
경남	59.0	91.4	79.1	68.8(2.8%)
부산	23.6	27.2	24.2	23.3(0.9%)
총 계	2,398.0	2,550.2	2,489.4	2,487.2

\* 자료 : 2015 해양수산 통계연보(해양수산부, 2015)

대규모 매립 및 간척 사업의 감소와 '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12개소 지정<sup>19)</sup>, 2008년 람사르 총회 개최 등 갯벌보호 노력의 결과 2000년대 들어 갯벌면적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갯벌 면적의 감소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현상이다(충청남도, 2015). 충남의 시·군별로 갯벌의 면적을 살펴보면, 태안군이 139km<sup>2</sup>로 가장 넓고, 서천군(70.9km<sup>2</sup>), 서산시(67.2km<sup>2</sup>)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2013년 기준).

<표 14> 충청남도 시군별 갯벌 면적

(단위: km<sup>2</sup>)

지역	2008	2013	면적 비율(%)	5년간 증감율(%)
아산	6.5	7.6	2.1%	16.9%
당진	28.1	24.6	6.9%	-12.5%
서산	67.3	67.2	18.8%	-0.1%
태안	138.4	139.3	39.0%	0.7%
홍성	14.4	14.3	4.0%	-0.7%
보령	32.8	33.1	9.3%	0.9%
서천	71.3	70.9	19.9%	-0.6%
합계	358.8	357.0	100%	-0.5%

\* 출처: 전국 갯벌면적 조사(해양수산부, 각 연도)

19) <부록 1> 참조

### 3) 해양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월 기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14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2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1개소)으로 구분되며 총 2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sup>20)</sup>.

충청남도는 신두리 사구해역(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서천 갯벌(습지보호지역),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 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신두리 사구해역은 국내 최대 사구로서 내륙과 해안 생태계 연결하는 완충지역이며 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서천 갯벌은 우리나라 3대 철새도래지로서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월동지이다. 2016년에 7월에 지정된 가로림만 해역은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서, 점박이 물범(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보호대상 해양생물)<sup>21)</sup>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sup>22)</sup>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으로 체계적 보전·관리 필요한 지역이다. 이곳의 해양 생태계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해양수산부, 2016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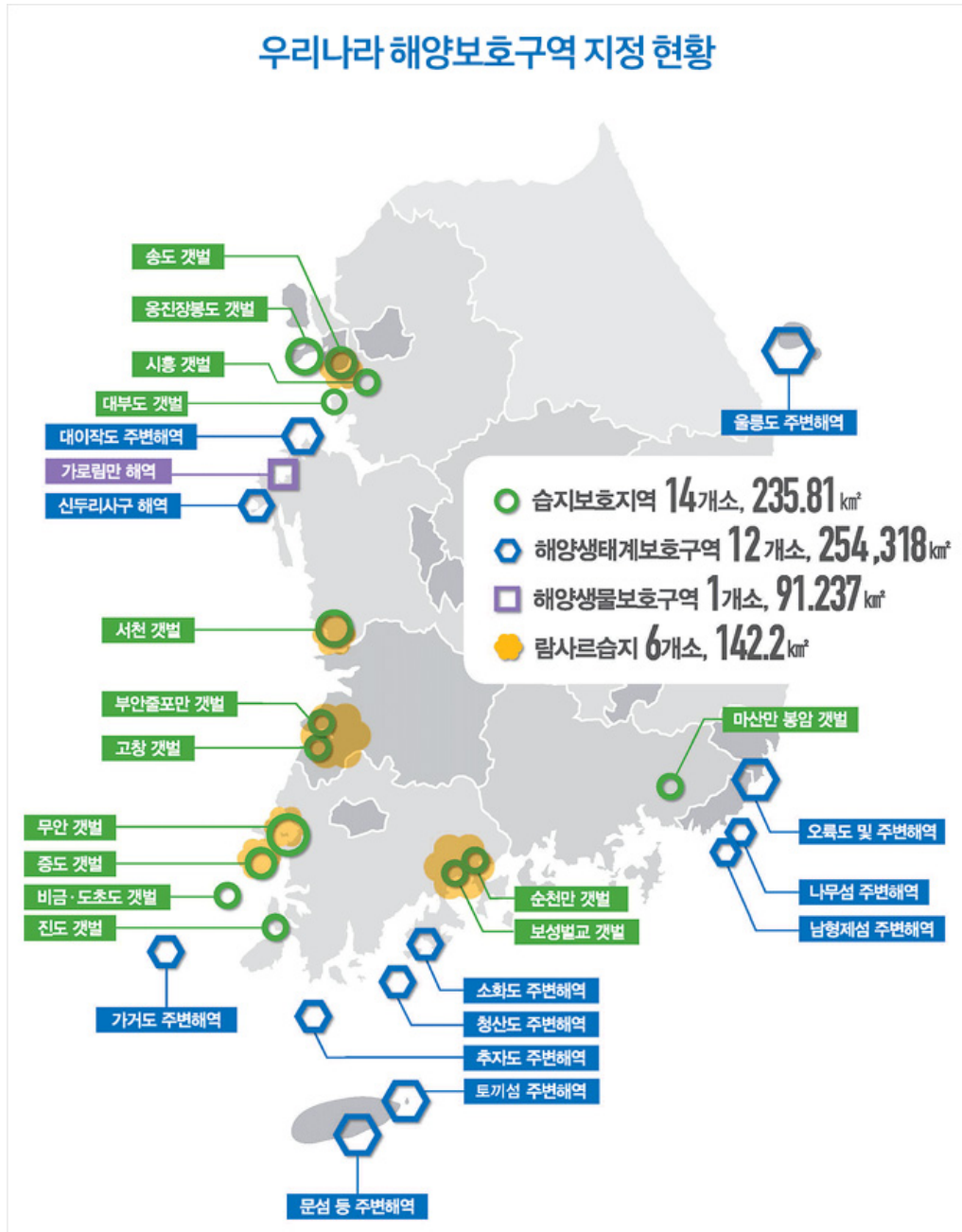
---

20) 해양보호구역 지정현황은 <부록 2> 참조

21)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이며,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22) 붉은발말뚝게, 거머리말 등이 서식한다.

<그림 4>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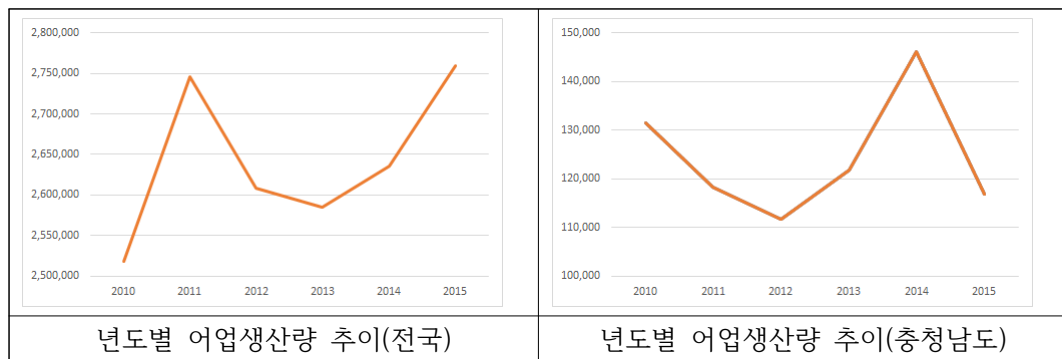
## 4. 수산 분야

### 1) 어업 생산량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국내 어업 생산량은 약 250만톤과 275만톤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약 275만 톤이었던 어업생산량은 향후 3년간 약 259만 톤과 264만 톤 사이를 유지하다가, 2015년에 다시 약 276만 톤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국내 어업 생산량에서 천해양식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4%로 가장 많고, 일반 해면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4% 정도이고, 내수면어업이 약 1.2%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sup>24)</sup>.

국내 어업생산에서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같은 기간 동안(2010년~2015년) 충청남도의 어업 생산량은 약 11만 톤에서 15만 톤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sup>25)</sup>.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어업 생산량이 감소를 하다가, 2013년과 2014년에 증가를 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5> 년도별 어업생산량 추이(2010년~2015년)



23) 본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을 넘어선 때는 2006년부터이다.

24) 양식어업의 생산량이 일반해면어의 생산량보다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어업 생산량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과 경상남도의 생산량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25) 충남의 어업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던 때는 2015년으로 전국 어업 생산량의 5.5%를 차지하였다. 2010년~215년 기간 동안, 충남의 어업 생산량은 전국 대비 4.2%~5.5%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표 15>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어업생산량은 일부 시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3개 시도가 국내 어업생산량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 시도는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는 국내 어업생산량의 약 절반인 130만 톤(47.3%)을 생산하고 있다.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각각 59.7만톤(21.6%), 36.3만톤(13.2%)을 생산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15> 어업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년도	구분	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내수면어업
2015	전국(국내계)	2,759,246	1,058,319	1,667,872	33,055
	충남	116,918 (5)	71,630 (5)	41,956 (3)	3,332 (5)
		4.2%	6.8%	2.5%	10.1%
	전라남도	1,304,468 (1)	134,125 (3)	1,163,354 (1)	6,989 (1)
		47.3%	12.7%	69.8%	21.1%
	경상남도	597,094 (2)	247,611 (2)	344,854 (2)	4,630 (3)
		21.6%	23.4%	20.7%	14.0%
	부산광역시	362,984 (3)	321,688 (1)	40,253 (4)	1,043 (9)
		13.2%	30.4%	2.4%	3.2%
	경상북도	126,465 (4)	119,766 (4)	4,543 (9)	2,156 (8)
		4.6%	11.3%	0.3%	6.5%
	제주도	81,419 (6)	53,214 (6)	28,200 (5)	5 (11)
		3.0%	5.0%	1.7%	0.0%
2014	전국(국내계)	2,635,771	1,059,166	1,546,826	29,776
	충남	146,064	88,011	55,023	3,034
		5.5%	8.3%	3.6%	10.2%

2013	전국(국내계)	2,585,322	1,044,697	1,515,210	25,415
	충남	121,765	71,623	47,548	2,588
		4.7%	6.9%	3.1%	10.2%
2012	전국(국내계)	2,608,115	1,091,031	1,488,949	28,132
	충남	111,698	70,000	38,415	3,281
		4.3%	6.4%	2.6%	11.7%
2011	전국(국내계)	2,745,305	1,235,489	1,477,546	32,270
	충남	118,282	82,377	32,000	3,905
		4.3%	6.7%	2.2%	12.1%
2010	전국(국내계)	2,518,518	1,132,536	1,355,000	30,982
	충남	131,479	92,253	35,799	3,427
		5.2%	8.1%	2.6%	11.1%

\* 자료 : 어업생산동향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주의 : ( ) 안의 숫자는 시도별 순위를 의미함

주의 :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의 합이 '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톤이하 수치의 반올림에 의한 것임

충남 어업의 특징으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일반해면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61.3%이고,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은 35.9%이다. 앞으로의 어업이 기르는 어업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충청남도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천해양식어업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패류의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16>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의 패류 생산량은 총 20,288톤이다(2015년 기준). 이는 전국 패류생산량(60,556톤)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치로서, 두 번째로 많은 패류를 생산하는 경상남도(12,094톤)와 비교하여도 약 70% 정도 더 많은 생산량이다. 이는 충청남도의 경우, 잘 발달된 갯벌을 활용한 패류의 생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6>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년도	구분	일반 해면						
		소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동물	해조류
2015	전국(국내계)	1,058,319	710,610	90,002	60,556	182,024	7,304	7,824
	충남	71,630 (5)	33,101	10,164	20,288	6,786	751	540
	전라남도	134,125 (3)	92,048	16,678	8,701	15,017	436	1,246
	경상남도	247,611 (2)	218,887	2,694	12,094	10,576	2,776	583
	부산광역시	321,688 (1)	243,694	495	2,247	74,598	285	368
	경상북도	119,766 (4)	32,928	25,231	1,625	57,149	501	2,330
	제주도	53,214 (6)	44,886	745	2,419	2,317	1,068	1,778
2014	전국(국내계)	1,059,166	689,957	102,260	58,179	187,765	11,318	9,687
	충남	88,011	46,160	14,553	20,587	5,470	626	615
2013	전국(국내계)	1,044,697	694,522	105,537	50,635	178,424	7,013	8,566
	충남	71,623	35,484	19,088	11,808	4,534	461	248
2012	전국(국내계)	1,091,031	704,386	105,232	58,056	207,409	5,825	10,123
	충남	70,000	35,668	14,822	14,203	4,698	463	146
2011	전국(국내계)	1,235,489	842,603	101,723	72,230	197,415	6,731	14,787
	충남	82,377	41,080	14,528	20,433	5,463	741	132
2010	전국(국내계)	1,132,536	736,198	108,199	80,380	187,777	6,939	13,043
	충남	92,253	45,115	17,599	24,175	4,171	1,097	96

\* 자료 : 어업생산동향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주의 : ( ) 안의 숫자는 시도별 순위를 의미함

## 2) 어업인 단체·조직

본 보고서에서 어업인 단체·조직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어촌계는 2,018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1,131개, 영어조합법인은 962개, 어업회사법인은 102개가 설립이 되어 있다. 어촌계가 가장 많이 조직되어 있는 곳은 전남(848개, 42.0%)과 경남(464개, 21.4%)이다. 나머지 시도들은 모두 10%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63개의 어촌계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대비 8.1%로 세 번째로 많이 조직되어 있는 것이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역시 전남(305개, 27.0%)과 경남(244개, 21.6%)에 가장 많이 설립이 되어 있다. 충남<sup>26)</sup>과 경북에는 각각 110여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고, 경인지역과 강원에는 각각 90여개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은 전국에 각각 962개와 102개가 설립이 되어 있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가장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 곳은 전라남도이다. 전라남도에는 영어조합법인 381개(39.6%)와 어업회사법인 29개(28.4%)가 설립이 되어 있다. 전라남도의 뒤를 이어서 제주도에 각각 217개(22.6%)와 23개(22.5%)의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135개(14.0%)의 영어조합법인과 11개(10.8%)의 어업회사법인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각각 전국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것이다.

<표 17> 지역별 어업인 단체·조직 현황(2015년 기준)

	경인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울산	부산	제주	계
어촌계	110 (5.5)	75 (3.7)	163 (8.1)	-	64 (3.2)	848 (42.0)	153 (7.6)	464 (23)	41 (2.0)	100 (5.0)	2,018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94 (8.3)	93 (8.2)	115 (10.2)	20 (1.8)	55 (4.9)	305 (27.0)	113 (10.0)	244 (21.6)	35 (3.1)	57 (5.0)	1,131
영어조합법인	42 (4.4)	28 (2.9)	135 (14.0)	16 (1.7)	84 (8.7)	381 (39.6)	7 (0.7)	48 (5.0)	4 (0.4)	217 (22.6)	962
어업회사법인	12 (11.8)	3 (2.9)	11 (10.8)	-	10 (9.8)	29 (28.4)	6 (5.9)	7 (6.0)	1 (1.0)	23 (22.5)	102

\* 자료 : 어업법인조사(KOSIS 국가통계포털), 해양수산부 전국어촌계 현황 자료(2015년 기준),  
자율관리어업 관련 통계현황(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 자료)

26) 전국대비 10.2%로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위의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어촌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촌계이다. 그리고 실제 어촌정책의 많은 부분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촌계와 어촌계 구성원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18>과 같다. 전국에 있는 2,018개의 어촌계에는 모두 138,055명의 어업인들이 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의 어촌계에 평균 약 68명이 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촌계원의 수가 전국 평균(68명) 이상인 지역은 제주(약 116명), 전북(약 105명), 충남(약 94명), 경인(90명), 부산(약 84명)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어촌계가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어촌계원들의 평균 소득은 약 2,861.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소득을 넘은 지역은 전남(3,261.5만원), 부산(3,180.7만원), 강원(3,179.7만원), 충남(2,951.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의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수와 평균소득에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8> 어촌계 및 구성원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개소, 명, 천원)

	경인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제주	계
어촌계	110 (5.5)	75 (3.7)	163 (8.1)	64 (3.2)	848 (42.0)	153 (7.6)	464 (23)	41 (2.0)	100 (5.0)	2,018
어촌계원	9,900 (7.2)	5,039 (3.6)	15,362 (11.1)	6,746 (4.9)	51,622 (37.4)	7,306 (5.3)	27,045 (19.6)	3,456 (2.5)	11,579 (8.4)	138,055
어촌계원 평균소득	25,704	31,797	29,519	27,396	32,615	21,523	26,729	31,807	20,307	(평균) 28,614

\* 자료 :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수협중앙회, 2015)

주 : ( ) 안의 숫자는 %

충남의 어촌계 현황<sup>27)</sup>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충청남도에는 총 8개의 지역수협이 있고, 서산수협에 가장 많은 48개의 어촌계가 소속되어 있다. 어촌계를 시·군단위로 살펴보면, 태안군에 충남 어촌계의 절반 이상인 87개(53.4%)의 어촌계가 분포되어 있고, 보령시에는 25개(15.3%)의 어촌계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충남의 수산업이 태안군과 보령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7) 어촌계가 등록된 수협의 소재지와 어촌계의 소재지가 반드시 같은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다.

<표 19> 충청남도 어촌계 현황

구분	개소	비고
당진수협	8	당진시 7, 아산시 1
보령수협	29	보령시 22, 홍성군 7
서산수협	48	태안군 31, 서산시 17
서천군수협	8	서천군 8
서천서부수협	11	서천군 11
태안남부수협	12	태안군 12
안면도수협	44	태안군 44
대천서부수협	3	보령시 3
계	163	전국의 8.1% (세번째)

\* 자료 : 해양수산부 전국어촌계 현황 자료(2015년 기준)

### 3) 어선세력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국적으로 어선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에 76,974척이었던 어선이 2015년에는 67,226척으로 5년 사이에 13.5%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것은 어업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선박 교체정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충청남도의 어선수는 이러한 전국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완만한 증가의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에 381척이 감소(전년 대비 6.2%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182척, 3.2% 증가)을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시도는 전남(26,803척, 39.9%)이고, 경남이 14,377척(21.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충남의 어선 수는 5,901척으로 전국대비 8.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전남, 경남과 비교하였을 때 그 격차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어선 세력 추이

년도	구분	합계			동력선			무동력선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마력수	척수	톤수
2015	전국	67,226	544,626	14,073,950	66,234	543,721	14,073,805	992	905
	충남	5,901	25,643	1,366,931	5,847	25,600	1,366,931	54	43
		8.8%	4.7%	9.7%	8.8%	4.7%	9.7%	5.4%	4.8%
	전남	26,803	96,044	4,544,076	26,555	95,775	4,543,991	248	269
		39.9%	17.6%	32.3%	40.1%	17.6%	32.3%	25.0%	29.7%
	경남	14,377	67,156	2,894,956	14,179	66,948	2,894,956	198	208
		21.4%	12.3%	20.6%	21.4%	12.3%	20.6%	20.0%	23.0%

2014	전국	68,417	585,234	14,058,252	67,191	584,237	14,058,252	1,226	997
	충남	5,719	24,423	1,300,225	5,667	24,384	1,300,225	52	40
		8.4%	4.2%	9.2%	8.4%	4.2%	9.2%	4.2%	4.0%
2013	전국	71,287	607,224	14,185,314	69,323	605,303	14,185,314	1,964	1,921
	충남	6,100	24,857	1,324,563	6,039	24,805	1,324,563	61	52
		8.6%	4.1%	9.3%	8.7%	4.1%	9.3%	3.1%	2.7%
2012	전국	75,031	610,114	13,952,670	72,922	607,997	13,952,670	2,109	2,118
	충남	6,091	23,824	1,256,234	6,033	23,780	1,256,234	58	44
		8.1%	3.9%	9.0%	8.3%	3.9%	9.0%	2.8%	2.1%
2011	전국	75,629	606,627	13,125,456	73,427	604,414	13,125,456	2,202	2,213
	충남	6,034	23,115	1,205,007	5,974	23,054	1,205,007	60	61
		8.0%	3.8%	9.2%	8.1%	3.8%	9.2%	2.7%	2.8%
2010	전국	76,974	600,622	13,348,276	74,669	598,365	13,348,276	2,305	2,257
	충남	6,017	23,097	1,164,900	5,959	23,045	1,164,900	58	52
		7.8%	3.8%	8.7%	8.0%	3.9%	8.7%	2.5%	2.3%

\* 자료 :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수산정보포털

## 5. 해양 레저·관광 분야

해양레저·관광산업은 해양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양을 매개로 형성된 연안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관련한 영리활동을 포괄한다. 이러한 해양레저·관광산업에는 해양레저·스포츠(마리나 포함), 해양생태관광, 해변관광(해수욕, 어촌·도서 관광 등), 유람선 및 크루즈 관광 등을 포함할 수 있다(박세현 외, 2013).

전세계적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의 2015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국제관광객 숫자는 2009년 이후 6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4.4%증가한 연 1,184백만여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인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해양레저·관광의 트렌드로 힐링·건강, 개성·감성, 환경, 글로벌화 등이 부각되고 있다. 즉, 고령사회 도래로 인한 휴식과 힐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해양헬스케어 및 힐링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충청남도, 2015).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요트, 보트건조, 크루즈 등 해양레저선박산업이 대규모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박세현 외, 2013; 충청남도 2015).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대표적인 예로 크루즈관광을 들 수 있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 Cruise Line International Association)의 2016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크루즈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둔화의 징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며, 중국 관광객들의 크루즈 관광 선호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성장의 기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유리한 충청남도의 경우,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1) 해양관광자원

충청남도는 국내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연안과 내륙에 다수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의 지정관광지는 총 28개소이다. 이중 13개소가 연안시도에 위치해 있는데, 이들 지정 관광지의 대부분은 해수욕장과 가족휴양관광지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1> 충남 연안·도서지역의 지정관광지 현황

관광지명	위치	지정일	면적(m <sup>2</sup> )	주요 개발내용
대천해수욕장	보령	'69. 1. 21	1,586,769	해수욕장중심 관광지
무창포해수욕장	보령	'86. 8. 20	354,000	해수욕장중심 관광지
죽도	보령	'90. 4. 19	72,783	해양스포츠 및 휴양시설
신정호	아산	'71. 5. 20	271,169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아산온천	아산	91. 3. 15	844,000	온천숙박중심 관광지
간월도	서산	'00. 5. 4	143,695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삽교호	당진	'83. 10. 10	231,583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왜목마을	당진	'02. 2. 26	133,876	가족휴양, 일출관광
난지도	당진	'00. 9. 7	155,440	가족휴양중심 관광지
금강 하굿둑	서천	'93. 9. 22	175,384	해양 및 놀이시설
춘장대 해수욕장	서천	'97. 3. 31	298,930	해수욕장중심 관광지
안면도	태안	'91. 2. 22	5,272,905	국제적 관광휴양지
만리포해수욕장	태안	'10. 5. 6	321,562	해수욕장중심 관광지
계	13개 지구		9,862,096	

\* 자료 : 2016 도정백서(충청남도, 2016)



## 2) 해수욕장

2015년 기준 전국의 지정 해수욕장은 254개소였으며, 전국적으로 99,855천명이 해수욕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지정 해수욕장의 분포 및 이용객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 강원도에 92개소(전국 지정 해수욕장의 36.2%)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전남 55개소(21.7%), 충남 34개소(13.4%)순이다. 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이용객의 46.3%가 부산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찾았고, 강원(25.8%), 충남(14.6%)순이었다.

<표 22> 전국 지정 해수욕장 분포 및 이용객 현황(2015년 기준)

(단위 : 개소, 천명)

구분	전국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수 욕장	254	7	0	2	0	92	34	3	55	25	25	11
이용 객수	99,855	46,203	-	2,294	-	25,791	14,566	107	2,007	5,188	764	2,935
		(46.3)	-	(2.3)	-	(25.8)	(14.6)	(0.1)	(2.0)	(5.2)	(0.8)	(2.9)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내부자료(2015) 및 보도자료, 연안포털

2017년도 기준 충청남도의 지정해수욕장은 총 33개로 전국 257개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태안군에 28개소, 보령시 2개소, 당진군 2개소, 서천군에 1개소의 지정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한편, 2016년도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수는 1,825만명으로 2015년 1,456만명과 대비하여 25.3%가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이용객이 방문한 해수욕장은 대천해수욕장으로 1,247.7만명이 방문하여 충남 전체 이용객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준장대해수욕장(195.2만명, 10.7%)과 무창포해수욕장(105.4만명, 5.8%)에 많은 이용객이 방문을 하였다. 대천해수욕장이 충남의 해수욕장 이용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령머드축제에 영향을

28)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내부자료(2015)

들 수 있을 것이다. 1998년에 시작하여 2017년 제20회를 맞이한 보령머드축제는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2017년 방문객은 총 5,688천명으로 2016년 3,995천명보다 약 41.9% 증가하였다.

해수욕장 이용객의 현황을 살펴볼 때,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일부의 해수욕장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수욕장 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천해수욕장이 전체의 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3개 해수욕장을 합할 경우 전체 방문객의 84.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많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태안군의 경우, 이용객의 수에 있어서는 충청남도 전체 이용객의 14.5%만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충청남도 해수욕장 방문객수 현황

시·군	해수욕장명	방 문 객 수 (명)			
		‘13년	‘14년	‘15년	‘16년
계	35개소	14,036,575	12,185,537	14,566,398	18,254,252
보령	대천	6,586,300	6,447,500	9,113,800	12,477,000
	웅천 무창포	1,018,000	1,084,100	1,019,840	1,054,400
당진	석문 난지섬	27,315	16,587	18,444	14,757
	석문 왜목마을	-	94,630	71,483	116,183
서천	서면 춘장대	2,200,000	1,954,000	2,175,550	1,952,450
태안	만리포	554,200	604,300	356,700	416,100
	몽산포	707,110	421,750	220,670	203,150
	꽃지	798,500	501,500	200,285	260,300
	삼봉	150,000	134,700	142,041	104,612
	연포	119,540	92,650	84,670	97,110
	학암포	189,000	79,500	70,970	74,050
	신두리	1,686,610	754,320	100,790	127,790
	천리포			97,130	115,430
	청포대			94,690	92,230
	방포			83,440	76,320
	백사장			64,140	80,970
	마검포			51,850	73,630
	기지포			50,830	68,590
	안면			48,810	69,540
	구름포			43,840	58,250
	빛개			42,800	65,910
	두여			42,620	미운영
	달산포			40,250	63,610
	의항			40,140	47,640
	샛별			39,930	66,950
	구례포			39,805	56,240
	방주골			38,410	43,500
	곰섬			29,940	53,250
	어은돌			29,540	59,520
	파도리			27,710	51,890
	갈음이			27,250	68,190
	꾸지나무골			20,970	40,420
	장삼포			19,800	52,600
	바람아래			17,260	51,670
	통개			미운영	미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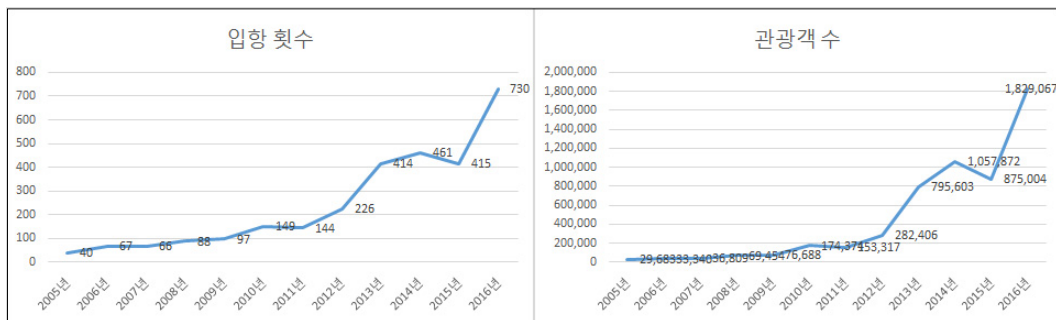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주의 : 두여해수욕장과 통개해수욕장은 2017년 지정해제

### 3) 크루즈

전세계적인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국내 크루즈 관광산업도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한 것은 2005년으로 약 3만 명(40회)이 입항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16년(11월말 기준) 입항횟수는 730회로 18.3배 증가하였고, 크루즈 관광객은 182만 9,067명으로 61.6배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6> 크루즈 선박의 국내 입항 횟수와 크루즈 관광객 수의 변화(2005년 ~ 2016년)



\* 자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표 24> 국내 각 항만별 크루즈선 기항 실적

(단위 : 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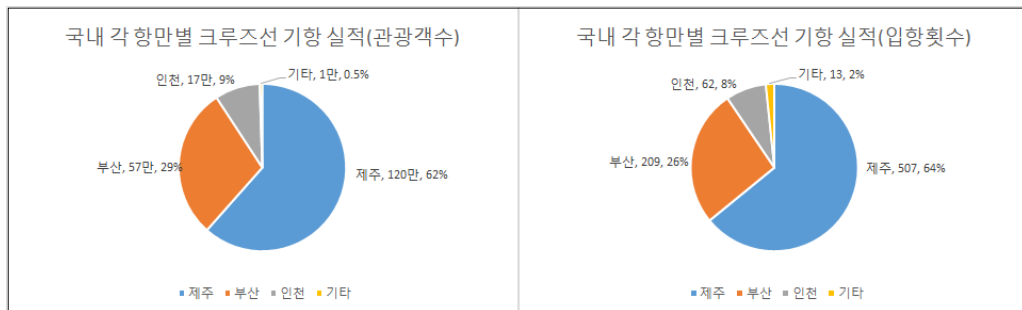
연도별		계	제주	부산	인천	여수, 광양	속초	기타
2005년	항 차	40	6	29	-	-	2	3
	관광객	29,683	3,205	24,852	-	-	800	826
2006년	항 차	67	23	36	-	-	-	8
	관광객	33,340	11,265	20,928	-	-	-	1,147
2007년	항 차	66	24	23	3	1	1	14
	관광객	36,809	17,285	14,289	1,955	426	405	2,449
2008년	항 차	88	39	29	6	2	1	11
	관광객	69,454	30,523	32,484	3,620	614	400	1,813
2009년	항 차	97	37	34	15	-	2	9
	관광객	76,688	38,147	26,744	8,932	-	710	2,155
2010년	항 차	149	49	81	13	5	-	1
	관광객	174,374	55,243	110,351	7,357	1,123	-	300

2011년	항 차	144	69	42	31	-	1	1
	관광객	153,317	64,964	51,331	36,653	-	188	181
2012년	항 차	226	80	126	8	11	1	-
	관광객	282,406	140,496	121,394	6,538	13,548	430	-
2013년	항 차	414	185	109	95	17	1	7
	관광객	795,603	390,589	200,949	173,121	29,691	298	955
2014년	항 차	461	242	110	92	13	-	4
	관광객	1,057,872	590,400	244,935	183,909	37,879	-	749
2015년	항 차	415	285	71	53	1	-	5
	관광객	875,004	622,683	162,967	88,061	799	-	494
2016년 11월말	항 차	730	469	199	60	1	1	-
	관광객	1,829,067	1,128,971	536,831	158,099	3,319	1,847	-

\* 자료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최근의 해양수산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19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해양수산부, 2017c)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항에 120만 명(507회 입항), 부산항 57만 명(209회), 인천항 17만 명(62회) 등 모두 791회에 걸쳐 195만 명이 입항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국내 각 항만별 크루즈선의 기항 실적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크루즈 관광에서 제주 및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2016년 국내 각 항만별 크루즈 관광객 수 및 입항횟수



\* 자료 : 해양수산부(2017c) 보도자료

크루즈 관광산업이 지역에 가지고 오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2016년 우리나라에 입항한 크루즈 관광객은 195만여 명이다. 이들이 기항지에서 소비한 금액은 약 2조 46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관광객 1인당 평균 약 105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또한 약 3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관련 산업에서 약 2만 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크루즈선의 입항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약 87억 원, 여객터미널 사용료 약 44억 원, 항만서비스 공급 약 66억 원 등 모두 197억여 원의 항만수입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2.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이러한 크루즈산업의 성장과 경제적 효과로 인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도 정부의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08)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6년 1월에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하였다. 동 조례는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계획수립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크루즈관련 선박관리, 선용품, 선박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는 크루즈산업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류동근 외, 2016). 현재 부산광역시 외에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로는 강원도(201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2014년 12월), 전라남도(2015년 12월) 등이 있다. 충청남도는 2017년 5월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6월 7일 공포하였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에서 크루즈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제주 관광권과 부·울·경 관광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동계획에서 충청남도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충청 관광권의 경우, ‘과학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융합 관광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크루즈가 핵심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표 25>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크루즈 관광 관련 내용

권역	관련 내용
제주 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과 핵심산업과의 복·융합을 위하여 크루즈 관광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li> <li>- 이를 위하여, 크루즈 관광 인프라 구축, 크루즈 선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차별화 등 크루즈 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li> </ul>
부·울·경 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레저·크루즈 관광 중추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음</li> <li>-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첫 번째로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허브 구현’을 설정</li> <li>-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수영만 등을 중심으로 해양레포츠관광시설 확충 및 크루즈 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한·중·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의 메카로 성장하는 것을 발전방향으로 삼고 있음</li> </ul>
충청 관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과 관광이 결합된 융합관광의 거점’을 목표로 하고 있음</li> <li>- 충청남도의 경우 ‘전통문화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크루즈가 핵심전략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음</li> </ul>

충청남도의 약점은 항구시설의 발달이 미흡하여,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열위에 있다는 점이다. 부산광역시는 2007년 영도에 8만톤급(최대 12만 톤급 수용가능)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를 완공하였으며,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이 2015년 8월 운영하게 됨으로써, 1번 선석과 14번 선석(보조선석)을 크루즈 부두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감만부두는 대체부두로서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임시로 접안하고 있다(김운수·조혜정, 2014; 류동근 외, 2016).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10월 제주 외항 제8부두에 8만 톤급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크루즈 전용부두를 완공하였고,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주 외항 서방파제(5만 톤급 접안가능)를 2013년부터 크루즈 예비선석으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제주 외항 크루즈부두(제8부두)와 다리로 연결할 예정이다(류동근 외, 2016). 또한 강정항은 해군부두와 크루즈선을 겸용으로 활용하는 민군복합항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15만 톤급 2선석의 크루즈 부두가 2017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강정항에는 크루즈 터미널 및 크루즈관광 테마거리 등 크루즈선 기항에

필요한 지원시설 및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김운수·조혜정, 2014). 인천광역시도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 북항 일반부두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경우에 컨테이너 전용 부두인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 2017).

<그림 8> 제주특별자치도의 크루즈항만 인프라



제주외항 크루즈부두(8부두)



강정 민군복합협관광미항(조성중)



## 6. 항만·어항 분야

### 1) 지정항만 보유 현황

항만은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된다.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을 말하며,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항만법 제2조). 전국적으로 항만은 무역항 31개소와 연안항 29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무역항은 다시 국가관리무역항(14개)과 지방관리무역항(17개)로 나뉘고, 연안항은 국가관리연안항(11개)과 지방관리연안항(18개)로 구분된다.

충청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항만은 무역항 5개소(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태안항, 보령항)와 연안항 2개소(대천항, 비인항)가 있다. 충남 항만의 장점으로서는 지리적으로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물류의 유입이 집중되는 수도권과의 근접성, 중국과의 최단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26> 충청남도의 지정항만 현황 및 항만구역

(2016. 12.31.기준)

구분	관리	항만 수		항만 면적		
		전국	충남	육상(km <sup>2</sup> )	해상(km <sup>2</sup> )	총 면적(km <sup>2</sup> )
계	계	60개항	7개항			
무역항	소계	31개항	5개항			
	국가관리	14개항	평택·당진항	6.35	94.25	100.6
			대산항	0.37	69.34	69.71
			장항항	0.17	4.90	5.07
	지방관리	17개항	태안항	0.01	34.68	34.69
			보령항	0.01	8.25	8.26

연안항	소계	29개항	2개항			
	국가관리	11개항	-			
	지방관리	18개항	대천항	0.34	21.83	22.17
			비인항	0.12	1.63	1.75

\* 자료 : 충청남도 해운항만과 업무자료

충남의 항만은 주로 에너지 및 철강에 특화되어 있어, 철광석 및 석탄, 유류 등 원자재 중심으로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의 5개 무역항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택·당진항은 유류 및 기계류(차량 및 차량 부품), 철재(철강 및 그 제품)의 비중이 높으며, 대산항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해 있어, 주로 유류 및 유연탄, 화학공업 생산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산항은 2007년부터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항항은 배후권역의 화물운송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시멘트 및 모래, 비료의 처리 비중이 높으나, 충남의 여타 무역항에 비하여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태안항과 보령항은 화력발전소로의 연료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항만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탄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태안항과 보령항은 각각 서부발전(주)과 중부발전(주) 시설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물류공급을 위한 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9> 전국 항만 위치도



\* 자료 :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양수산부, 2016b)

## 2) 어항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의 근거지로서(어촌·어항법 제2조) 어업활동 지원기능, 수산물 유통기능, 어촌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기능과 휴식공간기능 등을 수행한다. 어항은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은 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어촌·어항법).

국가어항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함)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의미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이다(어촌·어항법).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국가어항은 총 109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으며, 연안에 72개소, 도서에 37개소가 위치해 있다. 국가어항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31개(28.4%)로 가장 많고, 경남(19개, 17.4%), 경북과 강원(각각 14개, 12.8%)이 뒤를 잇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8개(7.3%)가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는 시도기준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표 27> 충청남도의 국가어항 지정 현황

시군	어항명	위치	어항구역(m <sup>2</sup> )	비고
당진시	장고항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1,000,000	연안
서산시	삼길포항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200,000	연안
태안군	모항항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360,000	연안
	안흥항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2,181,000	연안
홍성군	남당항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1,200,000	연안
보령시	오천항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83,000	연안
	외연도항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42,000	도서
서천군	홍원항	서천군 서면 도둔리	318,000	연안

\* 자료 :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지방어항은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을 말한다. 지정권자 및 개발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이다 (어촌어항법).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지방어항은 총 28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 지방어항 역시 전남이 91개(32.2%)로 가장 많고, 경남이 61개(21.6%)로 다음을 잇고 있다. 충남의 경우 29개(10.2%)의 어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부록 3> 참조), 이는 시도기준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표 28> 시도별 어항 현황

구분	어항현황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합계	109		283		611	
인천	5	4.6%	15	5.3%	32	5.2%
경기	1	0.9%	5	1.8%	11	1.8%
충남	8	7.3%	29	10.2%	24	3.9%
전북	6	5.5%	11	3.9%	14	2.3%
전남	31	28.4%	91	32.2%	94	15.4%
경남	19	17.4%	61	21.6%	342	56.0%
부산	3	2.8%	13	4.6%	5	0.8%
울산	2	1.8%	4	1.4%	9	1.5%
경북	14	12.8%	22	7.8%	11	1.8%
강원	14	12.8%	14	4.9%	23	3.8%
제주	6	5.5%	18	6.4%	46	7.5%

\* 자료 :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충청남도는 70년대부터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을 법정어항으로 지정하여 어항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열악한 투자여건으로 개발 완료된 어항이 16개항에 불과 (충청남도, 2016)한 상태이다.

<표 29>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이후
계	402,105	219,782	17,516	164,807
지방어항	306,138	213,181	17,016	75,941
어촌정주어항	95,967	6,601	500	88,866

\* 자료 : 2016 도정백서(충청남도, 2016)

### 3) 마리나

마리나산업은 마리나항만 조성·운영 및 레저선박 제작, 판매, 관리서비스를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산업 분야이다(해양수산부, 2015). 국내 운영 마리나는 2016년 12월 기준으로 총 33개소이며, 총 2,300여척을 수용할 수 있다<sup>29)</sup>. 그리고 현재 제부마리나, 홍원마리나 등 총 7개소가 개발 중에 있다.

충남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은 보령 요트경기장이 유일하다. 국토해양부가 2010년에 수립한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sup>30)</sup>”에서 충남권에서는 석문, 오천, 홍원, 보령이 마리나 개발 대상항만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충남권에서는 홍원, 창리, 왜목, 안흥, 무창포, 장고항, 원산도 등 7개소가 대상항만으로 변경되었다<sup>31)</sup>. 이 중 왜목은 국가지원으로 추진되는 거점형 마리나항만<sup>32)</sup>으로 선정이 되었다. 그 외에 남당항과 삼길포항은 어항내 유희수역에 레저선박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는 어촌 마리나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표 30> 충청남도 ‘마리나 항만’ 및 ‘어촌 마리나역’(驛) 현황

구분	소계	당진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
계	10	2	2	1	1	3	1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7	왜목*, 장고항	창리	안흥		무창포, 원산도	홍원
어촌마리나역	2		삼길포항		남당항		
운영마리나	1					보령요트경기장	

\* 왜목은 거점형 마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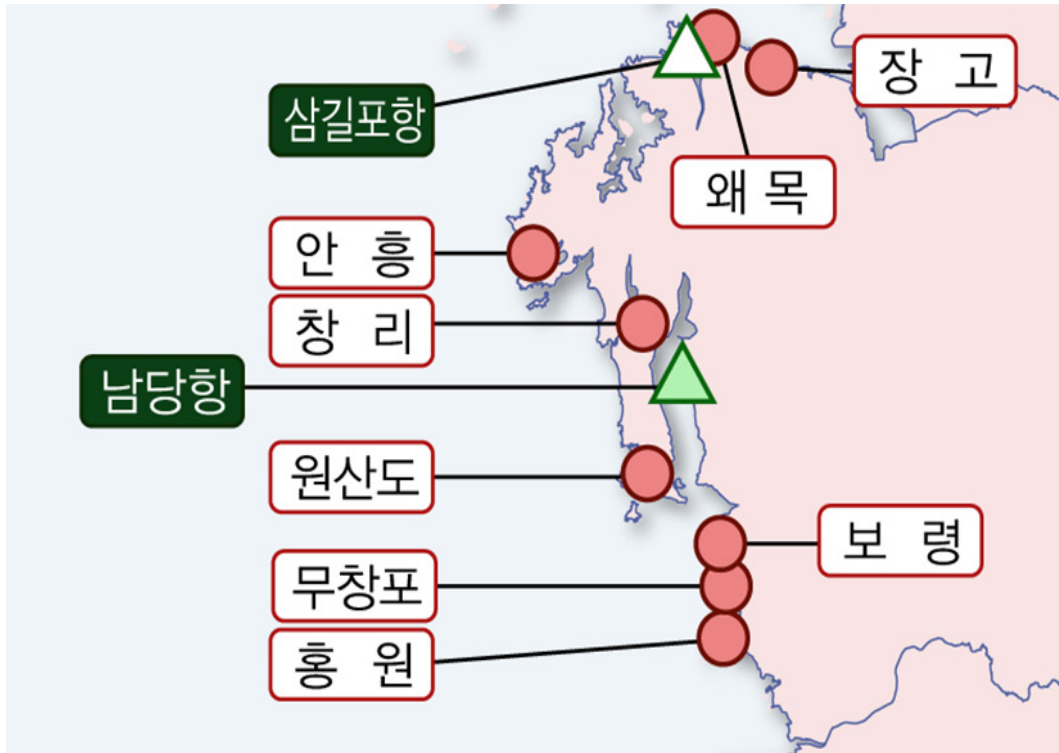
29) 자료 : 전국 마리나항만 현황(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자료)

30) 국토해양부 2010 제1차(2010~201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31) 수정계획에는 총 58개의 마리나항만에 대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32) 거점형 마리나 항만은 동해, 서해, 남해 주요 거점지역에 조성하는 국가지원의 마리나항만을 말한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울진 후포, 안산 방아머리, 여수 웅천, 창원 진해명동, 부산 해운대, 당진 왜목 등 총 6개소가 지정되어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10> 충청남도 '마리나항만' 및 '어촌 마리나역(驛)' 위치도



\* 주 : ●는 마리나항만을 의미하고, △는 어촌 마리나역을 의미함



## 제4장 충남 해양수산의 주요쟁점 및 제안

### 1. 해양환경 분야

충남이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분야에서 지니고 있는 장점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하여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철새 서식지 등 세계적인 연안습지 및 해양보호구역들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충남은 국내 연안습지 총 면적의 약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sup>33)</sup>, 신두리 사구해역(해양생태계 보호구역), 서천 갯벌(습지보호지역),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 보호구역)<sup>34)</sup>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연안습지와 해양보호구역은 해양환경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약점으로는 하굿둑·방조제·해안도로 등에 의한 연안지역의 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개발위주의 해양 및 연안이용 패러다임의 영향이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안지역에 위치한 인구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의한 육상기인 오염원이 상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해양환경 분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전남(42.0%)과 인천(28.5%)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이다.

34) 우리나라 유일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면적은 91.237km<sup>2</sup>(충청남도 태안군 및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이다.

<표 31> 충청남도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아스식 해안선의 발달로 인한 아름다운 해안경관</li> <li>- 세계적인 연안습지</li> <li>-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보호구역</li> </ul>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굿둑·방조제·해안도로 등에 의한 연안지역 환경 훼손 심각</li> <li>- 연안지역에 위치한 인구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의한 육상기인 오염원 상존</li> <li>- 해양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의 발생가능성 상존</li> </ul>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증대</li> <li>- 생태관광에 대한 선호 증가</li> <li>- 해양환경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li> </ul>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면 상승, 이상 파랑 등 연안침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 증가</li> <li>- 해양환경보전과 지역개발 간 갈등 상존</li> <li>- 저염수 유입으로 인한 환경 피해 가능성 상존</li> </ul>

이러한 조건에서 충남의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천갯벌에 대한 갯벌도립공원 지정을 제안한다.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인 바덴해를 끼고 있는 독일은 니더작센 바덴메어 국립공원(National Park Niedersachsische Wattenmeer, 람사르습지 1976), 함부르크 바덴메어 국립공원(National Park Hamburgisches Wattenmeer, 람사르습지 1990),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 바덴메어 국립공원(National Park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 람사르습지 1991)<sup>35)</sup> 등 3개의 갯벌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갯벌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객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도 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라남도가 무안갯벌도립공원, 신안갯벌도립공원, 벌교갯벌도립공원의 3개소를 도립공원으로 지정<sup>36)</sup>하여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충남의 갯벌면적은 약 357km<sup>2</sup>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갯벌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천 갯벌은 습지보호지역(2008년)과 람사르 습지(2009년)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 서천갯벌의 유부도 인근 갯벌은 검은머리물떼새<sup>37)</sup>를 비롯한 다양한 조류의 월동지로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조류학자들이 방문을 하고 있으며, 서천군 비인면의 선소리, 장포리 일대의 갯벌 역시

35)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http://www.wetland.go.kr>) 홈페이지 자료

36) 전라남도에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갯벌, 신안갯벌, 벌교갯벌 등 6개소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37) 천연기념물 326호

갯벌체험 활동을 하려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생태관광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전과 주민들을 위한 수익의 창출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역에 대하여 도해양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전 국토면적의 약 2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에는 20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4개소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정책기조에 맞추어, 충청남도는 보존가치가 높은 해역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제36조). 현재 해양수산부에 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기존의 3곳 이외에 근소만, 천수만, 아산만 갯벌 등 보존가치가 높은 해역에 대하여 충청남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평가하는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여, 예상지정지에 대한 꾸준한 환경 모니터링 및 관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체구성,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보호 해양생물종 및 어업자원의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역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관리모형의 도입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세부정책 및 사업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2. 수산 분야

충남 수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수산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국 패류생산량의 약 1/3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잘 발달된 질 좋은 갯벌에서 생산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대 시장인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충남의 수산업은 어업인의 감소 및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전국에서 다섯 번째)이 많지 않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인한 잔잔한 바다는 양식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 생산량 추이(37페이지의 <표 15>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충남의 천해양식 생산량은 41,956톤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생산량이지만,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전체 천해양식 생산량에서 전라남도(69.8%)와 경상남도(20.7%)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수치는 적지 않은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가 및 어가인구수, 어촌계 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발전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충남 수산업 분야의 경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하기 위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바지락, 해삼, 김, 굴 등을 4대 전략품종으로 선정하여 육성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품종의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단지의 조성과 같은 사업이 필요하다. 또한 천해양식의 비중이 타시도와 비교하여 낮은 문제에 관해서는,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기술을 도입·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은 4계절 수산양식이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표 32> 충청남도 수산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의 다양한 수산특산물</li> <li>- 수도권과의 접근성</li> <li>- 넓은 면적의 갯벌 보유 → 풍부한 패류 생산량</li> </ul>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인 감소 및 인구 노령화 심화</li> <li>- 낮은 수산물 생산량</li> <li>- 1차 산업 중심의 수산업 구조</li> <li>- 어선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약화</li> </ul>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및 해양자원 가치 증대</li> <li>- 해외시장 판로개척 가능성 증가</li> </ul>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 및 생태계 변화</li> <li>- 불법어업 및 어업분쟁으로 인한 어업갈등 심화</li> </ul>

### 3. 해양 레저·관광 분야

충청남도는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인 태안 해안국립공원, 신두리 사구 등 특색 있는 해양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해수욕장과 수려한 도서자원을 가지고 있다. 해양관광·레저·문화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해양관광·레저·문화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다. 수요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충남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의 접근 편의성이 우수하고,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한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충남의 해양관광·레저·문화분야에서는 기회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건강, 휴식, 힐링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해양헬스케어, 치유관광, 힐링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충청남도, 2015). 충남의 연안시·군은 해양헬스케어와 연관이 있는 해양자원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특히, 태안군과 보령시가 해양 헬스케어 및 치유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sup>38)</sup>. 현재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태안군과 보령시를 중심으로 한 해양헬스케어 산업단지 또는 해양치유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sup>39)</sup>.

<표 33> 충청남도 해양관광·레저·문화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안 해안국립공원, 신두리 사구 등 특색있는 해양생태환경</li> <li>- 다양한 해수욕장과 수려한 도서자원</li> <li>-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보유</li> <li>- 수도권과의 접근 편의성</li> </ul>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 및 도서지역 접근성 미흡</li> <li>- 부족한 관광 기반시설 및 인프라</li> <li>- 항구도시 및 배후단지 발달 미흡</li> </ul>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형, 생태형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 증대</li> <li>- 관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li> <li>-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고령화 인구의 증가</li> </ul>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과 관련된 국내·외 경쟁 심화</li> <li>- 항만 인프라를 포함함 기반시설 미흡</li> <li>-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관광객의 감소</li> </ul>

38) 태안군은 해양치유자원인 천일염, 염지하수, 해송 갯벌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보령시는 머드 및 머드를 활용한 제품과 머드축제와 같은 2차 상품 및 관광자원이 갖추어져 있다.

39) 태안군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자원 발굴을 위한 연구협력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다(해양수산부, 2017b).

한편, 충청남도의 여건을 감안한 크루즈 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충청남도의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루즈 산업은 항만시설 및 배후 관광시설과 관련된 기반시설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항구도시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크루즈항으로 개발가능한 곳은 대산항과 보령신항을 들 수 있다.

대산항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제여객터미널과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구축되어 있는 항구이다. 2016년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부두를 준공하였으며, 2017년 4월부터 대산항-룽옌항(중국)간 국제여객선 취항 예정이었으나, 사드 문제로 취항이 지연중인 상황이다. CLIA(2016)의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크루즈 터미널 등 크루즈 관광 인프라 시설은 관광객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수익성이 보장되는 장치산업이므로 초기에는 다목적 터미널 기능을 부여하여 복합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크루즈 전용시설로 전환하는 전략이 추천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대산항의 경우, 여객부두 및 관련 관광기반시설 등을 활용하여 크루즈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령신항은 물류와 관광(레저, 마리나, 크루즈 등)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항만 배후도시 발달이 비교적 미흡하여 크루즈 관광의 기착지로서 매력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보령신항을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크루즈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인근 관광지, 위락시설들을 확충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충청남도, 2015).

둘째, 크루즈 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선행한 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충청남도의 역량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크루즈 관광과 관련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에서 충청남도는 배제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주, 부산, 인천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산업이 개발되고 있다(김운수·조혜정, 2014; 류동근 외, 2016; 정승훈, 2014). 이러한 배제는 충청남도의 관련 인프라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인프라는 2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하나는 크루즈 선박의 입항과 관련된 항만 인프라 구축과 다른 하나는 크루즈 관광객이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배후 관광단지의 개발을 의미한다.

## 4. 항만·어항 분야

충청남도의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보유,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과 같이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하여 항만·물류와 관련하여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철강, 에너지, 석유화학 등에 특화된 항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산업의 유치에 유리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충남 주요 항만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장점과 기회를 특화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택·당진항은 일 반화물 처리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신규 및 전이 물동량을 유치하여야 한다. 대산항은 충청권 에서 유일하게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이 구축되어 있는 항만이다. 사드문제로 중국과의 국제여객선 취항이 지연중이지만, 중국과의 최단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 임에 틀림이 없다. 대산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한화토탈, 롯데케미칼, KCC 등 석유화학 기업들과 서산테크노밸리와 오토헤리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중국 교역의 거점항으로서의 발전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항항은 항만 재정비를 통하여 배후지역과 연계된 친수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항국가 생태산업단지의 조성과 연계하여, 생태·환경친화적인 항만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령신 항은 물류 및 크루즈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항으로의 개발을 추진한다.

<표 34> 충청남도 항만·어항 분야에 대한 SWOT 분석

강점(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과의 최단거리 항로 보유</li> <li>- 수도권과의 접근 편의성</li> <li>- 철강, 에너지, 석유화학 등 특화 항만 보유</li> </ul>
약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항만 인지도(대표 항만의 부재)</li> <li>- 항만 배후시설 및 배후도시 형성 부족</li> <li>- 컨테이너 화물 부두의 부족</li> </ul>
기회(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지역의 물동량 증가</li> <li>- 충남 주요 항만 인근 산업단지 조성 계획</li> </ul>
위협(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 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물동량 감소</li> <li>- 국내외 항만간 경쟁 심화</li> <li>- 국내 해운업 시장의 불황(한진해운 파산, 현대상선 경영 악화)</li> </ul>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의하여, 충청남도에는 7개의 마리나항만이 지정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33개의 마리나 중 충남에는 보령요트경기장이 유일하고, 현재 개발 중인 7개의 마리나 중에 홍원 마리나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왜목 거점형 마리나는 2017년 7월 중국 국영기업 라오디그룹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단계이다. 즉, 현재 충남은 타시도와 비교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충남의 마리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요트 클러스터 개발이 시급하다. 천수만은 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태풍 및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수역으로서 레저선박이 운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정계획’에 의하면, 천수만권에는 2개의 마리나항만(창리, 원산도)과 1개의 어촌마리나역(남당항)이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 중인 보령요트경기장도 인접해 있다. 상기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개발을 통하여 마리나 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수만 요트 클러스터의 마리나 항 개발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보령요트경기장~원산도 마리나~창리 마리나~남당항을 연결하는 항로, 또는 원산도·효자도~삼시도~호도~녹도~외연도~어청도, 원산도·효자도~고대도~장도고~외도 등을 연결하는 항로와 같이 충남의 아름다운 해안선 및 도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항로의 개발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천수만 주변 또는 보령시 연안에 마리나, 해양레포츠 관련 산업의 집적을 통한 ‘서비스형 마리나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당 클러스터는 소형 레저선박과 관련된 부품, 조립, 수리·정비, 선용품 도·소매, 소형 레저선박 매매 등과 관련된 산업의 집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sup>40)</sup>. 동시에 마리나 이용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쇼핑센터의 유치,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40) 소형 레저선박의 ‘건조’는 현 단계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이다.



##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동향 및 법제도를 분석하고,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적인 순위에 있어서 우수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과 경남과 비교할 경우, 절대적인 수치에서 많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1).

충청남도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프라는 항만·어항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반시설 및 항만 배후시설·배후도시의 구축과 같은 SOC와 관련된 사업도 해당하지만, 연구인프라와 해양수산 인력과 같은 인적자원과 관련된 인프라도 포함된다. 충남의 경우, 해양수산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프라의 pool이 충분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타 시도의 연구인프라(연구 인력, 연구 시설 등)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충남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간·사업체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내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관련 전문연구기관 분원 유치 등에 대하여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충청남도는 연안습지, 해양보호구역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분야의 경우, 타시도와 비교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연안습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패류생산의 기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전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연안습지와 해양보호구역은 해양환경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보호정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어업인의 삶의 터전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갯벌도립공원과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연안습지·해양공간의 활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해양공간관리(MSP, Marine Spatial Planning)의 개념에서 충남의 해안 및 해양 전체에 대한 개발·이용과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

41) 특히 수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남도는 또한 특색 있는 해양생태환경을 활용한 해양 레저·관광분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풍부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태안군과 보령시를 중심으로 한 해양헬스케어 산업단지 또는 해양치유 관광단지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양산업과 관련하여는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등 우수한 해양바이오 연구 기반이 이미 구축된 서천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해양수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연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업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해양수산부, 2017a). 그러나 현재 해양수산업 또는 더 나아가 해양수산업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해양수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2017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해양산업 통계조사, 수산업 실태조사 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 분류기준이 해양수산업분야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즉, 해당 해양수산업이 과대 추정되거나 과소추정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양산업 통계조사와 수산업 실태조사의 경우, 해양산업과 수산업에 적합한 분류기준을 사용하였으나, 시·도별로 구분이 되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별도의 통계를 구축하고 있다<sup>42)</sup>.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연계하여 해양수산산업을 6개 대분류, 29개 중분류, 107개 소분류로 구분하여 매해 부산해양산업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의 통계자료가 아닌,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해양산업조사코드를 개발하여 해양산업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

42) 부산해양산업조사의 해양산업분류는 <부록 5>을 참고

<부록 1> 전국의 습지보호지역 현황

명칭	위치	면적 (km <sup>2</sup> )	특징	지정일자 관리사업	비고
무안 갯벌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및 해제면 일대	42.00	- 생물다양성 풍부 - 지질학적 보전가치	2001. 12. 28.	람사등록 (2008. 1.)
진도 갯벌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고군면 일대(신동마을)	1.44	- 수려한 경관 - 생물다양성 풍부 - 철새 도래지	2002. 12. 28.	
순천만 갯벌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사동 일대 연안	28.00	- 흑두루미 서식, 도래 - 수려한 자연경관	2003. 12. 31.	람사등록 (2006. 1.)
보성벌교 갯벌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호동리, 장양리, 대포리 일대	10.30	- 자연성 우수 - 다양한 수산자원	2003. 12. 31.	람사등록 (2006. 1.)
웅진장봉도 갯벌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68.40	- 희귀철새 도래, 서식 - 생물다양성 우수	2003. 12. 31.	
부안줄포만 갯벌	전라남도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4.90	- 자연상태의 원시성 유지 - 염생식물, 도요새, 두루미, 백로 등 서식	2006. 12. 05.	람사등록 (2010. 2.)
고창 갯벌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원	10.40	- 자연상태의 원시성 유지 - 저서생물과 수산생물 서식 - 멸종위기종과 가마우 지, 왜가리 등의 서식처	2007. 12. 31.	람사등록 (2010. 2.)
서천 갯벌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및 유부도 일대	15.30	- 모래갯벌 조성 - 저서생물과 수산자원 생물 서식 - 천연기념물과 멸종위 기종의 서식처	2008. 1. 30.	람사등록 (2009. 12.)
송도 갯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6.11	- 국제적 학계조류 서식 도래	2009. 12. 31.	
증도 갯벌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31.30	- 자연상태의 원시성 유지 - 생물다양성 풍부	2010. 1. 29.	람사등록 (2011. 9.)
마산만봉암 갯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	0.10	- 도심 인근에 형성된 지 리적 특이성 보전 -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	2011. 12. 16.	
시흥갯벌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0.71	- 갯골의 경사가 급한 특이 지형 - 물새 및 법적보호종의 중요한 서식지	2012. 2. 17.	

<부록 2> 전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7년 3월 기준

지정명칭	지정일	면적(km <sup>2</sup> )	위 치	관리사업	비고
습지보호지역 (14개소)	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 (235.81km <sup>2</sup> )				
무안갯벌	'01.12.28	42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03~	목포청 (‘08.1 람사등록)
진도갯벌	'02.12.28	1.44	진도군 군내면 · 고군면 일대	'05~	목포청
순천만갯벌	'03.12.31	28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도시동 일대	'05~	여수청 (‘06.1 람사등록)
보성별교갯벌	'03.12.31	10.3	보성군 별교읍 호동리, 장양리, 대포리 일대	'06~	여수청 (‘06.1 람사등록)
웅진장봉도갯벌	'03.12.31	68.4	웅진군 장봉리 일대 갯벌	'09~	인천청
부안줄포만갯벌	'06.12.05	4.9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원	'07~	군산청 (‘10.2 람사등록)
고창갯벌	'07.12.31	10.4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원	'07~	군산청 (‘10.2 람사등록)
서천갯벌	'08.01.30	15.3	서천군 서면, 비인면, 종천면 및 유부도 일대	'09~	대산청 (‘09.12 람사등록)
송도갯벌	'09.12.31	6.11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10~	인천 연수구청 (‘14.7 람사등록)
증도갯벌	'10.01.29	31.3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10~	목포청 (‘11.9 람사등록)
마산만 봉암갯벌	'11.12.16	0.1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일대	'12~	마산청
시흥갯벌	'12.02.17	0.71	시흥시 장곡동 일대	'12~	인천청
비금·도초도갯벌	'15.12.29	12.32	신안군 비금면, 도초면 일원	'16~	목포청
대부도갯벌	'17.03.22	4.53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17~	평택청
해양생태계 보호구역(12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254.322km <sup>2</sup> )				

신두리사구해역	'02.10.09	0.64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05~	대산청
문섬등주변해역	'02.11.05	13.684	서귀포시 강정동-보목동 일원해역	'05~	부산청
오륙도및주변해역	'03.12.31	0.35	부산시 남구 용호동	'09~	부산청
대이작도주변해역	'03.12.31	55.7	웅진군 이작리·승봉리 일원	'06~	인천청
가거도주변해역	'12.11.30	70.17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일원	'13~	목포청
소화도주변해역	'12.11.30	0.81	완도군 금당면 육산리 일원	'13~	목포청
나무섬주변해역	'13.11.29	0.275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14~	부산청
남형제섬주변해역	'13.11.29	0.1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일원	'14~	부산청
청산도주변해역	'13.11.29	71.38	완도군 청산면 일원	'14~	목포청
울릉도주변해역	'14.12.29	39.44	울릉군 울릉읍 북면·서면 주변해역	'15~	포항청
추자도주변해역	'15.12.29	1.18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예초리 일원	'16~	부산청
토끼섬주변해역	'16.12.29	0.59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일원	'17~	부산청
해양생물 보호구역(1개소)	근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91.237km <sup>2</sup> )				
가로림만해역	'16.07.28	91.237	충남 서산시 및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	'17~	대산청

< 부록 3 > 충청남도 지방어항 목록

시군	어항명	위치	어가세력			면적(천㎡)
			어가수	어선수	총톤수	
당진(1)	난지도	석문 난지도	111	45	144	570
서산 (2)	간월도	부석 간월도	65	35	109	250
	구 도	팔봉호	54	49	96	128
태안 (13)	백사장	안면 창기	103	67	310	221
	몽산포	남몽산	78	44	139	140
	학암포	원북 방갈	58	42	200	420
	천리포	소원 의항	62	17	270	210
	만리포	소원 모항	79	2	21	121
	여은돌	소원 모항	78	12	155	357
	가의도	근흥 가의도	140	12	120	240
	채석포	근흥 도항	101	61	275	313
	마검포	남신온	60	63	333	580
	방 포	안면 승언	101	53	367	410
	영 목	고남 고남	28	71	267	162
	통 개	소원 파도	46	102	435	222
	만 대	이원내	119	55	308	162
홍성 (2)	어 사	서부 어사	190	27	233	205
	궁 리	서부 궁리	217	41	109	227

보령 (8)	무창포	웅천 관당	536	83	400	238
	녹 도	오천 녹도	47	16	97	243
	고대도	오천 삼시도	57	35	275	156
	효자도	오천 효자도	63	37	137	20
	원산도	오천 원산도	83	43	206	85.5
	장고도	오천 장고도	78	37	254	240
	삼시도	오천 삼시도	133	48	357	204.5
	호 도	오천 녹도	64	33	112	315
서천 (3)	송 석	마서 송석	305	114	254	1640
	월하성	서월호	88	56	93	222
	다 사	비인 다사	166	100	238	270

자료 : 충청남도 수산과 내부자료

< 부록 4 > 해양산업 통계조사의 해양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양관광업	해양관광시설운영업	유람선 및 크루즈 운영업 등 7개업
	해양레저스포츠장비 도소매 및 수리업	해양레저스포츠장비 도소매업 등 2개업
해운항만업	해운업	외항여객 운송업 등 10개업
	항만업	선용품공급업 등 7개업
해양건설업	항만시설 및 배후단지 건설업	항만시설 건설업 등 2개업
	해상교통로건설업	해상교량 건설업
	해양플랜트 및 구조물 설치공사업	해양플랜트 설치공사업 등 2개업
해양자원 개발업	해저광물자원 채굴업	해양모래 및 자갈 채굴업 등 3개업
	해수자원 개발업	해양심층수 개발업 등 2개업
	해양에너지 개발업	해상풍력에너지 개발업 등 2개업
	해양바이오제품 개발업	해양바이오의약품 제조업 등 4개업
해양환경 관리업	해양환경관리업	해양폐기물 및 퇴적오염물 수거업
		기타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선박 건조·수리업	선박 건조업 등 3개업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플랜트 건조업 등 3개업
	보트 건조업	보트 건조업
	해양구조물 건조업	해양구조물 건조업



해양기기· 장비제조업	해양레저스포츠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레저스포츠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자원개발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자원개발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환경 기기·장비 제조업	해양환경 측정 및 분석기기·장비 제조업 등 2개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기기·장비 제조업	선박 기기·장비제조업 등 2개업
해양전문 서비스업	해양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해양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해양금융·보험업	해양금융업 등 2개업
	해양경영컨설팅업	해양경영컨설팅업
	해양인력 공급업	해양인력 공급업
	해양관련 기타 전문 서비스업	해양소프트웨어 개발 등 7개업
해양공공 서비스업	해양관련 교육훈련기관	해양고등학교 등 5개업
	해양관련 연구개발업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등 2개업
	해양관련 협회 및 단체	해양관련 산업단체 등 3개업

< 부록 5 > 부산 해양산업 분류코드

해양산업분류 코드	해양산업 항목명	해양산업분류 코드(소분류)	해양산업 항목명
<b>1</b>	<b>해운·항만 물류</b>		
101	운송업 (수산물 운송업 제외)	10101	해상여객운송업
		10102	해상화물운송업
		10103	육상운송업
		10104	항공운송업
		10105	철도운송업
102	하역업	10201	항만하역
		10202	육상하역
		10203	항공하역
		10204	철도하역
103	보관 및 창고업	10301	일반창고업
		10302	냉동·냉장창고업(수산물제외)
		10303	위험물품보관업
104	정보업	10401	항만물류IT업
		10402	해상통신관련업
105	해양금융 및 보험업	10501	해양관련 금융업
		10502	해양관련 보험업
106	해운·항만 물류 관련 서비스업	10601	운송주선업
		10602	해운중개업
		10603	해운대리점
		10604	선박대여업
		10605	선박 및 선원관리업
		10606	관세사업
		10607	포장·검량·검수, 검역, 감정
		10608	예선업
		10609	도선업

		10610	항만운역업
		10611	선용품판매 및 중개업(상선용)
		10612	선박금융업
		10619	기타 해운·항만 물류관련 서비스
2	수산		
201	어업	20101	원양어업
		20102	근해어업
		20103	연안어업
		20104	내수면어업
202	양식업	20201	해면양식업
		20202	내수면양식업
		20203	수산물 부화 및종묘생산업
203	어업관련 서비스업	20301	어업관련 서비스업
204	수산가공·식품산업	2040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20402	훈제 및 조리 식품제조업
		20403	냉동품제조업
		20404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20405	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20409	기타 수산가공업
205	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	20501	냉동냉장 창고업
		20502	수산물운수업
		20503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식품무역업
		20504	수산물중개업
		20505	수산물도매업
		20506	수산가공식품 도매업
		20507	수산물소매업,전자상거래업

206	수산물 관련 용품 제조 및 공급업	20601	선용품 제조, 판매 및 중개업(어선용)
		20602	어망어구·로프제조 및 판매, 중개업
		20603	얼음제조 및 판매업
		20604	낙시용품제조 및 판매업
		20605	양식사료 제조 및 판매업, 임대업
		20606	어상자 제조, 대여 및 판매업
207	수산물 금융 및 보험업	20701	수산물 관련 금융업
		20702	수산물 관련 보험업
3	해양과학기술		
301	해양바이오 관련사업(해양바이오 명부에 등재된 업체만 해당됨)	30101	해양바이오 제약관련사업
		30102	해양바이오 연료관련사업
		30103	해양바이오 신소재관련사업
		30104	해양바이오식량및 식품 자원 관련사업
		30105	해양바이오 환경관련사업
		30109	기타 해양바이오사업
302	해양 자원 및 에너지 개발 관련 산업	30201	해양 신재생 에너지 개발
303	그 밖의 해양과학 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30301	해저석유&가스 채굴업
		30309	해양공학및 기타 연구개발
4	조선		
401	선박 건조업	40101	강선건조업
		40102	합성수지선 건조업
		4010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40104	보트 건조업

		40109	기타 선박 건조업
402	조선기자재 제조업	40201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40202	내연기관 제조업
		40203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40204	선박용전기장치 제조업
		40209	기타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업
403	해양플랜트 제조업	40301	해양플랜트 제조업
404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40401	해양레저장비 제조업
		40409	기타 해양장비 제조업
405	선박 및 조선 기자재수리 및 판매, 임대업	40501	선박 및 조선 기자재 수리업, 도장공사, 목공사
		40502	선박검사 및 기술서비스업
		40503	선박 및 조선기자재 판매 및 임대업
<b>5</b>	<b>해양 관광</b>		
501	해양레저 · 스포츠업	50101	유람선업
		50102	해양레저장비 도 · 소매업 및 수리업
		50103	해양레저장비 임대업 및 스포츠서비스업
		50104	수족관업
		50105	낚시장운영업
		50106	해양관련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502	숙박 및 음식업	50201	숙박시설 운영업
		50202	음식점업
503	그 밖의 해양관광관련 서비스업	50301	크루즈 및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업
		50309	기타해양관광관련 서비스업

6	기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 보전에 관한 산업		
601	해양 문화	60101	해양관련 전시컨벤션
		60102	해양관련축제
602	해양 관련 공공행정	60201	정부해양행정기관
		60202	지방해양행정기관
		60203	해양교육 서비스업 및 연구업
		60209	기타 해양관련 기관
603	해양개발업	60301	해양건설관련 전문공사 및 관련장비임대업
		60302	수중공사업
		60309	기타 해양광업
604	해양환경	60401	해양 폐기물 처리업
		60402	해양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업
		60403	해양폐기물 수거 및 복원업
		60409	기타 해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05	기타 해양자원의 관리 보전과 관련된 산업	60501	도서류 판매 및 출판업

##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2010). 제2차 해양수산물발전기본계획(2011~2020). 관계부처 합동.
- 국토해양부(2011).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2016).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변경).
- 국토해양부·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경찰청(2011).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경찰청.
- 김근섭(2017). 항만물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 발전.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전략 세미나 발표 자료집.
- 김대영 외(2016).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어촌공동체 발전방안. 한국수산물개발원.
- 김대진(2016). 해양 신성장 산업의 현황과 전망. 산업은행 조사월보 2월호.
- 김운수·조혜정(2014).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2017). 수산양식산업 투자유망분야 분석.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대한민국정부(201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대한민국정부.
- 류동근 외(2016). 부산크루즈산업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부산광역시·부산항만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문화체육관광부(2011).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 문화체육관광부.
- 박세현 외(2013).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 정책지원 방안 수립 기획연구.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수협중앙회(2015).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수협중앙회.
- 인천항만공사(2017). 인천항 신 국제여객부두 크루즈부두 2월부터 임시 개장 (보도자료). 인천항만공사.
- 임변삼(2004). 해양바이오산업.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장정인(2016).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화 동향과 정책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정승훈(2014). 제주지역 크루즈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2016). 해양바이오 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기획보고서.

충청남도(2015). 충청남도 해양수산물발전계획. 충청남도.

충청남도(2016). 2016 도정백서. 충청남도.

충청남도(2017). 제56회 충남 통계연보. 충청남도.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2016). 2016 수산·해양환경 통계.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한덕훈(2015). UN 수산물결의안 최근 논의 동향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해양수산부(2008). 해양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 Blue-Bio 2016('08~'1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4).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5). 2015 해양수산물 통계연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6a).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6b).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6c). 해수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보도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7a).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산업 규모 127조 원(보도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7b).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양치유산업 본격 추진한다(보도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2017c). 2016년 크루즈 관광객 195만 명 달성: 2016년 크루즈 관광객  
입항 결과 발표, 크루즈관광 200만 명 시대 임박(보도자료). 해양수산부

CLIA(2016). State of Asia Cruise Industry & Research Findings.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Global Industry Analysits, Inc.(2015). Marine Biotechnology : A Global  
Strategic Business Report.

Smithers Rapra(2015). The Future of Marine Bio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s to 2025.



■ 집 필 자 ■

연구책임 · 김진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략연구 2017-07 · 충청남도 해양수산의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글쓴이 · 김진영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7년 12월 31일 / 발행 · 2017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86(행정복지연구부)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403-9 03350

<http://www.cni.re.kr>

© 2017.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